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979
clarapark@ownnewengland.com
Clara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팩스: 617-254-4210

ISSN 1554-6942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한국시간) 경기도 화성시 기아 오토랜드 화성에서 열린 전기차 전용공장 기공식에서 축사를 마친 뒤 단상을 내려가고 있다. 바이오헬스, 로봇 시 무인자동차 등을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내세운 대통령의 관심이 보스톤 방문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 보스톤 방문, 바이오헬스 등 전략 산업에 관심 반영

최고 바이오 클러스터 보스톤 여러 곳 대통령 방문 준비 정황
보스톤다이내믹스 등 로봇산업 관심, 한인동포 간담회는 일정 없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명술 기자 = 미국을 국빈 방문해 26일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 회담이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이 워싱턴 방문 후 보스톤을 방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초청으로 예정된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은 올해 한-미 동맹

70주년이라는 역사적인 해를 맞아 이뤄지는 것으로서 우리 정상으로는 2011년 이후 12년 만이자, 바이든 행정부 출범 뒤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이번 미국방문에서 워싱턴 외 다른 도시 방문일정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최근 지역의 여러 사업체들의 움직임은 윤 대통령의 방문을 준비하 ▶▶6면으로 계속

한인 소득은 높지만 집보유율 유물 아시안 중 바닥권

베트남, 소득은 낮아도 집보유율 가장 높아
아시아아메리칸부동산중개인협회 연례 보고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미국에 사는 한인들은 비교적 높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집보유율은 54.2%로 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아메리칸부동산중개인협회(AAREA) 3월 16일 발표한 2023 아시아아메리칸상태보고에 따르면 1백 45만명의 거주 한인들은 중간소득이 10만 달러로 비교적 상위권에 속했지만 집보유율은 54.2%에 그쳤다.

아시아계 중에 소득 가장 높은 나라는 인도 출신으로 중간소득 \$153,050이었다. 그 뒤를 필리핀계(\$107,000) 중국계(\$103,500), 일본계(\$102,300)가 이었다. 중간소득이 10만 달러를 넘은 것은 한인들까지 총 다섯개 국가 출신이었다.

가장 집보유율이 높은 ▶▶7면으로 계속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이혼

617.504.0609
law@lookjs.com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K STADIUM REALTY
REAL ESTATE

President **애나 정** 부동산 전국 1위

32년의 풍부한 경험
최고의 전문가에게서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받으시기 바랍니다
주택 · 콘도 · 비즈니스 · 빌딩 · 렌트

617.780.1675

anna@kstadiumrealty.com
annajungboston@gmail.com

Residential
Commercial
Business
Investment
Property Management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WWW.BOSTONPREMIERREALTY.COM

나원태: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반기문 사무총장, 케네디스쿨 졸업연사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올해 5월 하버드케네디스쿨 졸업식 연사로 초대됐다고 하버드 케네디스쿨 더 글라스 엘멘도프는 3월 29일 밝혔다. 반기문 총장은 에드워드 메이슨 펠로우로 재임했으며 1884년 공공 행정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2017년에는 케네디스쿨 앤젤로포울러스 글로벌 퍼블리셔스펠로우로 재임기도 했다. 반기문 총장은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유엔 사무총장으로 재임했으며 기후변화, 빈곤, 그리고 인권과 성평등 문제 등 세계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집중했다. 그는 또한 유엔의 평화유지작업 개혁, 인도주의 협력 강화, 투명성과 효율성 증대

를 위한 조치 등에 많은 노력을 쏟았다. 사무총장 이전 반 총장은 한국의 외무장관직을 수행했으며 이전에 대통령안보수석,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대다 등 고위 외교관을 역임했다. 엘멘도프 총장은 성명을 통해 “뛰어난 반기문 동문이 하버드 케네디스쿨 졸업식 연사로 돌아오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우리 학생들은 공공부분 지도자 그리고 정책 입안자를 꿈꾸고 있다. 학생들은 반 총장의 유엔에서의 성취와 외교관으로서 오랜 경력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케네디스쿨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반 총장은 “올해 졸업생들을 축

하하는 자리에 돌아가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 동문으로서 학교를 졸업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헌신이 필요한 것을 알고 있다. 졸업생들의 기쁨과 자부심이 팽배할 것이다. 삶의 여정에서 또 다른 단계로 나아가는 졸업생들을 격려하고 축하하는 자리에 서게 돼서 기쁘다” 고 말했다. 최근 케네디 졸업 연사로로는 마이산두 몰도바 대통령, 피트 부티지 지상무부 장관, 은고지 오콘조이웰라 세계무역센터 사무총장 등이 있다. 케네디스쿨 졸업식은 5월 24일 수요일 열리게 된다. 이 졸업식은 www.hks.harvard.edu/commencement로 생중계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조현동 주미대사 부임, 10일도 안돼 아그레망 받아

미, 이례적 신속 부여...역대 주미대사 '최단기간'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김효정 기자 = 신임 주미대사에 내정된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미국 정부로부터 아그레망(외교사절에 대한 접수국의 사전 동의)을 받은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외교가에 따르면 조 차관은 최근 미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받았으며 이르면 내주 현지에 부임할 예정이다. 이달 말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이전에 신속하게 부임해 대사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조 차관은 지난달 29일 조태용 전임 주미대사가 국가안보실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신임 주미대사에 내정됐다. 아그레망 부여는 외교사절 접수국 고유의 권한으로, 미국의 경우 아그레망을 내주는 데 평균적으로 4~6주 정도가 걸렸다는 점에서 조 차관이 윤 대통령 방미 이전에 부임할 수 있을지에 외교가

의 관심이 쏠린 바 있다. 미국은 조 차관에 대해 이례적으로 빨리 아그레망을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우리 정부 주미대사 가운데 사실상 최단기간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012년 최영진 주미대사가 내정 열흘 만에 아그레망을 받았던 사례가 있는데 이보다 짧은 '한 자릿수' 날짜가 소요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차관은 주미대사관 공사와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 등을 지낸 '북미·북핵통' 외교관이다. 외교부 1차관으로 양자외교를 맡는 각 지역국을 총괄하며 이미 한미관계 현안 조율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지난 5월에는 서울에서 에드가드 케이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보좌관을 접견하고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 등을 논의했다.

서울설렁탕 겨울특선메뉴

사골 떡만두국

진한 사골 국물에 정성으로 빚은 만두가 들어간 든든한 식사로 추운 겨울을 포근하게 보내세요



Take out Available 포장가능

Beef Soup for the Soul 서울설렁탕 SEOUL SOULONGTANG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MA 02134 Tel: 617-505-6771

형사법
상법/회사법
민사법
부동산/클로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미국에서 75주년 제주4·3추념식, 터프츠 플레처 스쿨에서 열려

이념을 넘어 인권으로, 미국도 함께 추모해야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미국에서 제주·3희생자 제75주년 추념 행사가 6일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다. 이번 제주4·3추념식은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외교 대학원인 터프츠 플레처 스쿨에서 열렸고, 미래의 외교관 정책관들이 함께 한 자리였다.

재미 제주·3기념사업회·유족회 양수연 회장은 "제주도민들은 연좌제의 고통 속에서 살아왔다.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도민에게 한국 정부의 가혹한 탄압에 대해서 사과했고, 2021년 여야 합의로 통과한 제주·3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많은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과 보상이 시작되었다"며, 미국인들이 제주·3사건을 함께 기억하고 추모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진 주요 연사들의 발언은 제주4·3사건의 비극적인 실상과 미국의 역할, 그리고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에 대한 이야기로 이루어졌다.

플레처 스쿨의 이성윤 교수는 "제주4·3사건은 10세 미만 어린이 800여 명을 포함해 무고한 3만여 명의 희생자가 나온 평시 상황의 최대 학살 비극이다. 제주4·3은 미군정 시대에 발

생하여 미군정이 직간접적으로 한국의 군경에 무기를 지원하였으며, 미국은 제주도민을 포함한 한국인들에게 빛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교수는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시 제주4·3평화공원에 가서 참배한다면 한미동맹의 새로운 획이 그어지는 날이 될 것이라고 희망을 표현했다. 또한 일각의 제주4·3에 대한 거짓 주장에 대해 "1948년 4월 3일 봉기한 350여명의 무장세력이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는 증거는 없으며 여러 사료를 바탕으로 볼 때 제주도 일부의 좌익 청년들의 단독적인 행동이었다"며 일축했다.

보스턴 대학 전승희 교수도 "무고한 어린이들과 여성들 수천명까지 희생되었고 미국이 책임을 통감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며 현재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미국과 한국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 김창범 회장, 재일본제주4·3희생자유족회 오광현 회장, 제주특별자치도 오영훈 도지사, 제주4·3평화재단 고희범 이사장이 이번 미주 추념식을 위해 특별 추념사를 보내와 영상으로



6일 텡스 플레처스쿨에서 열린 제주4·3추모행사에서 시민참여 예술단, 동백의 향기의 추모춤을 선보였다

소개되었다.

월든 코리아 기획위원이자 플레처 스쿨의 북한 워킹 그룹의 공동대표 정도영 씨는 월든 코리아의 연혁과 그간의 활동 내용, 기획위원으로서 월든 코리아 영문저널에 참여한 소회도 밝혔다.

월든 코리아는 재미제주4·3기념사업회·유족회가 설립한 학술 플랫폼으로 기획위원은 대학생, 대학원생 및 학자들 가운데 자발 신청 또는 추천을 통해 선발해왔다. 현재는 보스턴 칼리지, 존스 홉킨스대학, 터

프츠 플레처 스쿨, 경희대학 등의 학생들이 활동하고 있다.

한편, 추모 공연은 김지나, 이리사 씨 등이 이끄는 시민 참여 예술단 '동백의 향기'의 춤, 그리고 뉴잉글랜드 음악원 교수인 트럼펫터 라이언 오코넬 씨와 양수연 회장이 듀엣으로 윈들러 리스트 주제곡과 재즈가수 빌리 홀리데이의 학살의 비극을 다룬 곡 'Strange Fruit'를 불렀다.

이번 행사는 터프츠 대학 플레처 스쿨의 북한 워킹 그룹이 도왔으며

제주4·3국제네트워크,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가 주관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후원했다.

재미 제주4·3기념사업회·유족회는 매해 4월 보스턴을 중심으로 제주4·3추념식을 개최하며 각종 세미나, 교육 사업, 영문 저널 등을 통해 제주4·3사건을 미국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재미 제주4·3기념사업회·유족회의 활동은 www.43jeju.com 그리고 학술 활동은 www.waldenkorea.org 를 보면 된다.

Shoe City Family Dental



(원장: 김동원)

코로나로 변한 세상,
이제 당신의 건강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최고의 의료 장비와
최고의 의사가
최고로 건강한 치아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103 Merrimack St
Haverhill, MA 01830

Phone : 978.971.0060
Fax : 978.971.0061

주 하원도 부양가족 1인당 \$600 세금감면안 공개

힐리 주지사의 7억5천만달러 세금안에 준하는 6억 5천만달러안 제안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명술 기자 = 모라 힐리 주지사가 부양가족 세금 크레딧 대폭 인상을 포함한 27일 7억5천만달러(\$750 million) 규모의 세금감면안을 공개했다. 이번 세금감면안은 자녀세금크레딧, 세입자 및 시니어 세금 감면 등이 포함됐으나 일괄적인 세금리베이트 등은 제외됐다.

주 하원은 11일 총 6억5천4백만달러(\$654 million)의 세금감면 계획을 공개했다. 올초 힐리 주지사가 제안한 10억달러 감면안보다는 작지만 대부분 주지사의 세금감면안을 반영했다. 상원은 아직 감면안을 발표하지 않았다.

하원의 세금감면안은 힐리 주지사의 감면안과 유사하게 부양가족 및 세입자 그리고 시니어 세금크레딧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힐리 주지사가 제안한 부양가족 당 \$600 세금크레딧이 현실화 될 가능성을 높였다. 하원은 상속세 및 자본소득세의 개편과 1986년 세수초과법 개편을 아울러 담았다.

로날드 마리아노 하원의장은 이번 법안에 대한 표결을 이번 주 목요일인 13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원은 10일 하원 2024년 예산안을 발

표한 후 바로 표결에 부친다는 방침이다.

하원 예산위원장 아론 미셀비츠 의원은 “주민들에게 필요한 재정정보를 통해 더 많은 돈을 간직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이번 하원안은 매사추세츠 사업체들과 근로자들에게 경제적으로 더욱 경쟁력 있는 작업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독립사업연합(NFIB) 매사추세츠 크리스토퍼 칼로치 디렉터는 “소상공인들은 하원이 힐리 주지사의 상속세보다 낮은 상속세 한도를 선택한 것에 실망을 금치 못했다. 매사추세츠는 좀더 경쟁력 있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 MA는 2023년 소득세를 높이는 유일한 주”라고 하원의 선택에 대해 비판했다.

다음은 주요 세금감면 내용이다. **부양가족 세금 크레딧(Child and dependent tax credit)**

하원의 부양가족 세금크레딧도 기존의 두가지 세금크레딧을 하나로 합친 것으로 가족들은 자녀, 장애부양가족, 시니어 등 부양가족에 대해 크레딧을 각 \$600씩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현재 크레딧 가족수 한도를 제거했다.

현재는 가구부양가족세금크레딧(Household Dependent Tax Credit)으로 부양가족에게 최대 \$360의 크레딧을 제공하며 부양가족에게 차일드케어 비용 또는 홈케어 비용을 돕기 위해 최대 \$480을 제공하는 부양가족케어크레딧(Dependent Care Tax Credit)이 있었으며 이 중 하나의 크레딧만 최대 2명의 부양가족에 한해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하원안은 \$600을 첫 해부터 지급하지 않고 3년에 걸쳐 점차로 증액시키는 방법을 택했다.

하원안에 따르면 2024년에는 부양가족당 \$310을 지급하며, 2025년에는 \$455, 26년에는 \$600, 그리고 2027년에는 \$614을 지급한다. 이번 세금감면으로 인해 70만 주민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

상속세 (Estate tax)
하원은 상속세를 현재의 1백만달러에서 2백만달러로 올렸으며 현재의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체 상속 재산이 아닌 가치가 2백만달러를 초과할 때 세금을 부과한다.

힐리는 상속세를 3백만달러의 가치가 되는 재산에만 세금을 부과기로 제안했다. **세금크레딧 확대(Increased tax**



로날드 마리아노 하원의장

credits)
하원은 렌트 또는 집을 소유한 시니어의 세금 크레딧을 현재의 \$1,200에서 \$2,400로 올렸으며 세입자들의 세금 디덕션 한도를 \$3,000에서 \$4,000으로 올렸다. 또한 근로소득공제(EITC)을 연방 크레딧의 30%에서 40%로 늘렸다.

단기자본소득세 (Short-term capital gains)
하원은 1년 미만 주식거래로 생긴 소득 즉 단기 자본소득세를 12%에서 5%로 인하한다. 단 첫째 해에는 8%, 두번째 해부터는 5%로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힐리 주지사의 안도와 유사하지만 단계적 적용을 채택하지 않았다.

단기 자본소득세는 지난해 재계에서 활발하게 로비활동을 벌였었다. 그러나 진보 그룹이 이 단기소득세

가 부유층만 살찌울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제외 됐다.

기타 개편
세금감면안과 더불어 하원은 40년이 된 현장 62F를 수정한다. 이 법안은 주 세수가 일정한도를 초과시 이를 주민들에게 환급하도록 한 법안이다. 지난해 이 조항으로 인해 주정부는 30억 달러에 달하는 세금 환급을 실시했었다. 그러나 이 법안으로 인해 지난해 7월 추진했던 세금 감면안이 막판에 좌초되는 상황이 연출됐었다.

현재 법안은 세금환급이 납세금액에 따라 지급하게 되므로 고액 납세자들의 환급이 상대적으로 컸었다.

이번 하원안은 세금을 모든 납세자가 균등하게 받도록 조정했으며 세수잉여 한도를 높였다. editor@bostonkorea.com

스티브 배 변호사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이민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 드립니다.**

**7일 24시간 변호사와
상담 가능합니다**

Steve Bae

이민법 전문 변호사

781.457.8846

steve@attorneystevebae.com
attorneystevebae.com

48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한차원 높은 의료서비스 휴람 의료관광을 이용해보세요!

휴람 만성수술

직업병, 식습관, 생활환경으로 오는 만성질환?
병원 선택/ 의사 선택/ 예약 및 치료절차/ 치료 후 사후 관리/ 비용등...
이 모든 걱정으로 선택 못하신 고국방문 수술,
휴람은 국내수가로 부담없는 비용에 편안하고 안전한 진행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치질, 담낭용종(결석), 탈장, 하지정맥류, 요실금,
자궁근종, 전립선비대증, 코골이, 목/허리 디스크,
관절질환, 암질환, 심장/뇌혈관질환 등등.**

좋은 가격!!! 높은 퀄리티!!! 친절한 서비스!!!
휴람은 상담부터 치료진행,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에 검사하신 기록이 있으시다면 카톡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 수술은 병원에 따라 입원기간 및 비용, 서비스등이 상이 합니다.

휴람 척추관절 네트워크 병원 - 휴람 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중앙대학교병원(흑석역) / H+양지병원(신림역) / 세란병원(독립문역)
강남지인병원(학동역) / 장트윈트병원(서울대입구역) / 강남병원(신갈역)

휴람 의료관광
휴람 코리아 세디클 주주

해의의료사업팀장
김수남

617.949.1766

카카오톡 : 010-3469-4040(ID: huramkorea)
이메일 : huram@huram.kr
홈페이지 : www.huramkorea.com

J2K
(주)제이투케이컴퍼니
협력업체

매스주 공화당 지지자 절반 이상 주 떠나고 싶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민주당 텃밭인 매사추세츠에 거주하는 공화당 지지자들의 상당수가 이곳을 떠나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메스 에머스트와 WCVB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주 공화당 소속의 주민 절반 이상은 지난해 이전을 고려했다. 이는 세금 인상과 진보적인 정책에 대한 좌절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700명의 매사추세츠주민들 중 공화당 소속 주민 53%는 좀더 저렴한 타주로 이전을 고려했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제시 로드스 정치학과 교수는 “보수 유권자 또는 공화당 유권자들은 미국내에서 가장 진보적인 주중의 하나인 매사추세츠에서 소수층이다. 이들이 지금 불만을 표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부분의 보수 공화당 유권자들은 매사추세츠주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며 다수가 매스주를 떠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로드스 교수는 말하고 “이들은 세금이 너무 비싸며 정책이 너무 진보적이라 점이 불만족”이라고 덧붙였다.

모라 힐리 주지사는 현재 세금감면을 추진 중이며 올해 초 10억달러 규모의 감면을 제시했다. 하원도 11

일 세금감면안을 선보였으며 내년부터 6억5천4백만 달러의 세금감면을 제안했다.

태티시 은테타 유메스 에머스트 정치학과 교수는 “힐리 주지사는 상속세와 단기자본소득세 개정을 주요 정부의제로 제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했다.”며 “이번 조사가 현재 많은 주민들의 매사추세츠 탈출의 예고편이라면 주지사의 정책 제안은 많은 주민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반드시 공화당 소속 주민들만이 아니었다.

약 40%의 매사추세츠 주민들은 지난해 매사추세츠 엑소더스를 생각했으며 유색인종과 젊은 주민들의 43%, 4만달러 이하 소득자 46%도 매사추세츠 탈출을 고려했었다.

응답자들이 매사추세츠 탈출을 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비싼 생활비, 삶의 변화, 세금과 진보적 정부정책 등이었다.

전체 39%의 응답자들은 이주를 고려했는데 이는 6개월전 35%에 비해 증가한 것이다. 특히 젊은이들과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이전을 많이 고려하고 있다.

18-29세의 주민들은 이전을 고려



했으며 41%의 대졸자들과 42%의 대학원 졸업자들이 매사추세츠 탈출을 생각했다.

로드 교수는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활발한 사회를 위해서는 이들 젊은 고학력 층의 지속적인 생활 유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긍정적인 데이터도 있다.

생명공학, 의학, 교육, 파이낸스 등이 이끌고 있는 매사추세츠 경제에 대해 주민들은 54% 좋다고 밝혔다. 미국 전체 경제가 좋다고 답한 응답자는 27%에 그쳤다.

자신들의 경제적 상황을 물었을 때 긍정적인 답변은 변하지 않았으며 약 44%가 경제적 상황이 좋다고 답했다.

한편 주의 치솟는 집값, 렌트비, 임

금 등은 미국내 다른 지역이나 해외에서의 선택의 목적지가 되고 있기도 하다고 은테타 박사는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주민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약 20%의 주민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상황을 ‘나쁨’으로 표시했으며 이는 2021년 11월 이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였다고 밝혔다.

생활비용, 인플레이션 그리고 주택값은 주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이슈였다. 약 25%는 렌트비를 납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23%는 모기지를 납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또한 26%가 의료비용, 28%가 음식값을 지불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hsb@bostonkorea.com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영의 QR 마크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시면 보스톤코리아 홈페이지로 자동 연결됩니다



Publisher & C.E.O

정명숙 Myong Sool Chang

Writer

한새벽 SaeByuk Han
박현아 HyunAh Park
정선경 Sun Kyung Jung

Graphic Designer

정현웅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현웅 HanWoong Chung
김수정 Soojung Kim

Contribution part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락 Andrew Koak
앤젤라엄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상상 HaSang Hong
이명원 Myung Won Lee
장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송동호 Dongho Song

& TV 사업국

617-955-9112

재휴일제 | 연합뉴스 | 미신협 회원사 | 세한연 회원사

면역력 재충전

120년의 철학

국내산 6년근 만을 고집하며,
100% 계약 재배한 인삼 만을 사용합니다.

홍삼정 240g
1개 구입시 30g 증정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로 주문후 다음날 편하게 받으세요.
\$100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J.K. PLUMBING & HEATING

30 Years Experience!

- Remodeling, Kitchen, Bathroom
- Installation Appliance (Dish Washer, Disposal)
- Basement Sump Pump
- Dry Cleaner Boiler & Gas Burner
- Water Pipe & Gas Pipe Relocation
- Drain Clog Cleaning
- Central A/C Maintenance
- Small Electric Work

978.303.7000

업재관 jkeum56@gmail.com FULLY INSURED LICENSE.MA ,15777

윤 대통령 보스턴 방문, 바이오헬스 등 전략 산업에 관심 반영

▶▶1면에 이어서

는 것이 좀더 구체화 된 것으로 보인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보스턴을 방문해 29일 보스턴을 떠날 예정이다. 2박3일 일정은 워싱턴 정상회담 이후 곧바로 보스턴을 방문, 보스턴에서 일정을 소화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스턴 방문이 이뤄지는 경우 현직 대통령이 보스턴을 방문하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과거 김대중, 김영삼, 박근혜 대통령이 보스턴을 방문한 사례가 있지만 김대중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전에, 김영삼 대통령은 퇴임 후에 방문했다.

따라서 현직 대통령으로 처음으로 방문하게 될 보스턴에서 일정과 행보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윤 대통령의 보스턴을 방문은 바이오헬스 산업 등 4차 산업에 관한 높은 관심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말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키워나가기 위해 정부가 역량을 모으고 지원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특히 대통령은 바이오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의지를 밝히고, “벤처와 청년들이 이 분야에 도전하고 이를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한국형 보스턴 클러스터 조성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또한 “바이오헬스 산업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키워겠다”고 강조했다.

보스턴에는 보건산업진흥원미국지사(KHIDI USA)가 진출한 이래 한국기업의 미국 진출의 교두보인

코리아 바이오이노베이션센터(Korea Bio Innovation Center, 이하 KBIC)가 케임브리지혁신센터(CIC)에 함께 자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래 먹거리로서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될 보스턴의 바이오 산업계는 윤 대통령의 방문으로 더욱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오에 이어 윤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방문할 곳은 현대차가 인수한 월덱소재 보스턴다이내믹스와 현대자동차가 절반의 지분을 보유한 자율주행차 기업 모션 등이 될 가능성이 크다.

자율주행차 로봇산업은 인공지능과 깊숙이 연관되어 있으며 바이오헬스분야와 더불어 4차 산업의 핵심이다. 윤 대통령은 로봇 및 AI 산업도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며 로봇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따라서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고의 로봇 아틀라스, 스팟 등을 만들어내고 있는 보스턴다이내믹스는 빼놓을 수 없는 곳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의 방문과 연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국의 디자인 진흥원에서 4월말 보스턴에서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라셀 및 노스쇼어 대학 경제학과 한문수 교수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보스턴 방문으로 한인사회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이며 보스턴이 한미 경제공조에 있어 중심도시로 우뚝 서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 교수는 “한국의 대미투자는 그동안 조지아주와 텍사스 등 대단위 생산공장 위주의 투자”였다고

지적하고 “보스턴은 하버드와 MIT 등 연구 중심 최첨단 산업의 산실인 도시로 바이오와 로봇 산업은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내는 도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보스턴 방문은 한국의 미래 먹거리를 깊이 고려한 방문이라고 생각한다. 대미 투자가 앞으로 바이오와 로봇 산업 등 연구중심의 보스턴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보스턴 한인사회에 긍정적인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스턴의 산업 중심의 일정 외에도 윤 대통령의 행선지는 하버드 대학과 하버드 케네디스쿨 등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하버드 케네디스쿨에서는 한반도안보서밋이 열리고 있으며 이번 서밋에는 박진 외교부장관이 직접 참석해 환영사를 전달하기도 했다.

하버드 케네디스쿨 행사표에는 4월말 공식일정이 잡혀있지 않았다. 케네디스쿨 세론 워크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방문에 대해 묻자 “공식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변했으며 “혹 추후 변동사항이 있으면 알리겠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케네디스쿨을 방문한다면 케네디스쿨 연설이 일정으로 잡혀 있을 수도 있으며 한미공조와 대북관련 ‘보스턴 선언’이 깜짝 발표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싱크탱크이자 연구 대학으로서 케네디스쿨의 미국 정계에 대한 영향력과 상징성을 감안한다면 윤 대통령의 연설은 ‘보스턴 선언’으로 향후 한반도 정세 및 대미 관련 정책의 큰 축이 될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경기도 화성시 기아 오토랜드 화성에서 열린 전기차 전용공장 기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다만, 이번 윤 대통령 보스턴 방문과 관련 한인사회 간담회는 기획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장영수 한인회장은 “대통령 방문에 관한 소문은 들어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일정과 한인사회 간담회 등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서도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워싱턴에서는 한인사회 간담회 일정이 잡혀 있으며 이미 간담회 참석자들에게는 초청장이 배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통령 방문과 관련 학계, 의료계 인사들은 말을 아꼈다. 한 한인사회 인사는 “보스턴의 주요 산업에 집중된 방문일 것으로 예상되며 그 일정 소화에도 바쁘지 않겠느냐”며 한인사회와의 일정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과 관련한 한국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은혜 홍보수석은 지난 달 7일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달 26일로 예정된 국민만찬을 포함해 일정을 진행하면서 한-미 동맹 성과를 축하하고 동맹의 미래 발전 방향에 관해 심도있는 논의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도

같은 시각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가 오는 4월 26일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국빈으로 맞이하며, 국빈방문에는 국민만찬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은 같은 날 국민만찬에 앞서 열릴 예정이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국빈방문(State visit)은 미국 대통령이 사용할 수 있는 외교도구로서 백악관이 가장 가까운 동맹에서 화려한 행사와 전통으로 기념한다. 일반적으로 종일 정상회담을 비롯한 외교적 회담이 이어지고 성대한 국민만찬이 곁들여진다.

이 신문은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에 이어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2번째로 윤 대통령이 국빈 초대된 것은 북한 및 중국과 관련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기대하는 협력 정도를 말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 취임 직후 한국을 방문했으며 백악관은 북한의 위협에 한미동맹으로서 대응하는 결속을 다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신문은 전했다.

editor@bostonkorea.com

YOUNG DENTISTRY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진료 과목

일반 치과
크라운
임플란트
잇몸 치료
Invisalign
Sleep Apnea

중은치과, 중은치아

보험
Delta Dental Premier,
Blue Cross Blue Shield
Indemnity Plan

Young K Son, DMD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공인세무사 김창근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금융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받는 대학출신은?

MIT 최고소득, 공립대로는 버지니아 대 1위
MIT 타 대학 졸업자들보다 \$48,000 더 받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한새벽 기자 = MIT를 졸업하고 금융계에 취업하는 경우 다른 학교 졸업자들에 비해 높은 연봉을 받게 된다고 월 스트리트저널이 11일 보도했다.

버닝글래스인스티튜트(Burning Glass Institute) 취업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내 대학중에서 MIT가 금융계에 취업시 가장 높은 연봉을 받게 되며 주립대 중에서는 버지니아대학(University of Virginia)이 가장 높은 연봉을 받았다.

이번 대학순위는 커리어를 선택하고 같은 분야에서 계속 수년간 일했을 때 졸업한 학교가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 선정됐다.

순위에 따르면 금융계에 종사하

는 MIT 졸업생은 다른 학교 졸업생들의 중간 연봉에 비해 10년간 연평균 한해당 \$48,000을 더 받았다. 약 10년간 금융계에 종사하는 대졸 학생들의 평균 연봉의 중간값은 \$96,751이었다.

8개 아이비리그 학교 중 7개는 금융계 종사자 연봉이 높은 상위 20개 학교에 포함됐다. 하버드는 2위로 \$39,879를, 3위는 프린스턴으로 \$39,094를 더 받았다. 4위는 유젠, 5위는 다트머스, 6위는 예일, 7위는 콜롬비아, 8위는 듀크, 9위는 미들베리칼리지, 10위는 시카고대 순이었다.

매사추세츠에서는 윌리엄스칼리지가 16위, 웰슬리 칼리지가 17위로 20위 안에 들었다.

공립대학으로는 버지니아대학 졸

업생들이 평균 \$20,000를 더 받았으며 미시간 앤아버와 빙햄튼대학이 2, 3위로 뒤를 이었다. 흥미로운 점은 뉴욕 소재의 3곳의 공립대학교 버나드바로치 칼리지가 6위, 스톤브룩 스테이트대학이 8위, 알바니의 뉴욕주립대가 10위를 차지했다는 것이다.

뉴욕시 또는 주위에 있는 대학들이 인턴십을 통해 은행과 금융사, 헤지펀드 그리고 기타 금융회사들에 취업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버닝글래스의 맨 시글먼 회장은 말했다.

따라서 금융의 중심지인 뉴욕과 보스톤 인근에 있는 대학들이 대부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보인다.

버닝글래스는 이번 대학 순위를 노동시장 자료회사인 라이트캐스트의 급여와 경험 자료, 그리고 클래스도어의 자료를 분석해 결과를 도출했다.



AREAA Press Conference

한인 소득은 높지만 집보유율 아시안 중 바닥권

▶▶ 1면에 이어서

것은 베트남계로 69.2%가 주택을 보유했다. 2위는 중국계로 66.3%, 3위는 일본계로 65.3%였다. 4위는 필리핀계(64.3%), 5위는 인도계(62%) 순이었다. 그 뒤를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하와이계, 인도네시아가 이었으며 한국의 10번째였다.

AAREA측은 베트남계가 중간 소득이 \$82,900로 크게 높지 않음에도 집보유율이 가장 높은 것은 여러가지 요인이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베트남계는 좀더 저렴한 남부지역에 상당수가 분포되어 있으며 대가족이 한집에서 거주하기 때문에 모기지를 납부할 수 있는 소득자들이 다수라는 점이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AAREA는 “아시안계가 동일한 성향이 아닌 아주 다양한 여러 그룹으로 국가별로 다른 집 보유율을 지녔다”고 밝혔다. “베트남이나 필리핀계는 남부와 중서부에서 아주 크게 분포해서 살고 있음이 드러났으며 아시안계들의 소득은 높지만 여전히 집보유율이 낮아 아직도 많은 일을 해야 함

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편, AAREA는 아시안들이 고소득인 경우도 있지만 중저소득인 경우 결코 백인들과 유사하지 않으며 거의 흑인과 히스패닉 수준의 소득과 집보유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히고 아시안들이 유색인종의 혜택에서 제외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동북부를 놓고 봤을 때 한인들은 소득면에서 약 11만 달러 높았지만, 집 보유율에서는 48%로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낮았다. 이는 동북부의 높은 집값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매사추세츠에는 동북부에서 커네티컷과 함께 유일하게 아시안 인구가 증가한 지역이었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내 한인이 가장 많이 거주한 곳은 LA, 뉴욕 순이며 3위는 워싱턴 DC 버지니아, 4위는 시애틀 등 워싱턴 지역, 5위는 애틀랜타 조지아 지역인 것으로 드러났다.

AAREA는 2015년부터 이 같은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이를 발표하고 있다.

KIM LAW OFFICE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업무 분야:
이민법 / 상법 / 형사법

주요 경력

- 前 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 지사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 지부 연방 범죄관련 직권 수사
- 前 미 육군 심문관

TEL: 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하이텍 플러밍
HIGH-TEK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합니다.
Specialize in Plumbing, Heating, Air-conditioning, Nail Salon Ventilation.
Residential & Commercial, New Construction, Remodeling

레스토랑(Restaurant), 네일살롱(Nail Salon), 레지덴셜(Residential) 다수 공사 경력
Master PL #15210
Fully Insured

David : 617.828.2993
Kevin : 508.215.9211
hightek2010@yahoo.com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 8:30~9:25)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Koreanschool.ne@gmail.com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뉴타운 플러밍

PLUMBING HEATING AIR CONDITIONER

Repair & Service, Renovations & Installations
Plumbing repairs, Gas servicing
Hot water tank & boiler
Sink, Toilets, Faucets, Water leaks, Disposal

MA Licensed 책임 보험 가입 **617.543.8106**

지금과 같은 주택시장에서 주택 사고팔기의 정석

보스톤의 제한적인 주택 매물, 금리로 인한 수요감소 구매자들은 변동금리, 모기지 금리 바이다운 고려해야 판매자들은 과도한 호가는 금물, 적절한 금액 제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높은 모기지금리, 지역 소규모 은행 위기 그리고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가 2023년 주택시장에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 보스톤글로벌은 이 같은 위기 상황이라고 해서 결코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답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웰슬리 소재 더글라스 일리먼 부동산사의 일레인 배니건은 “금리가 내려가길 기다리는가? 가격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겠지만 매물이 없어 결코 폭락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는 소식을 기다리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투어 집을 내놓아 집값이 대폭 조정될 수 있다. 아마도 이런 상황은 상당 시간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사추세츠 주택시장은 아직도 여러가지로 힘들지만 점차 긍정적인 신호들이 일어나고 있다.

주택가격은 지난달 급격히 오르지 않았고 그레이터보스톤중개인 연합에 따르면 2월 그레이터보스톤지역 중간 가격은 \$700,000로 전년동월 대비 7.6% 하락한 수직이었다. 다행히 지난해에 비해 매물이 증가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높은 금리에 낮

은 주택매물인 지금 계속 주택구입을 기다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이 배니건씨의 제안이다.

금리상황이 아주 좋아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있지만 지금같이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는 주택시장을 전혀 가망없는 시장이라 여길 이유는 없다.

배니건씨는 주택구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대안으로 변동금리(ARM)를 제안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 주택을 구입하고 향후 모기지 금리가 내려가면 모기지를 리파이낸스하라고 권장한다.

한 레드핀 경제학자는 3월 금리 하락을 기다리면서 변동금리모기지를 선택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변동금리모기지는 30년 장기 고정금리모기지보다 짧은 기간으로 시작한다. 가장 인기있는 ARM은 5/1로 알려진 모기지로 5년간 고정금리 그리고 이후부터는 모기지 조건에 따라 매년 금리가 변동되는 모기지다.

배니건씨는 “지금 같은 시기에 변동금리를 선택하는 것이 장점이 있다. 이 같은 변동금리모기지는 금리가 정말 낮았을 때는 거의 사망선고 상황이었다”라고 말하



고 “또 다시 금리가 역사상 최저로 내려가는 시기를 기다릴 수는 없다. 아마도 이 같이 낮은 모기지는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레드핀의 분석에 따르면 2022년 5월 12일에 이르는 4주동안 5/1 ARM을 선택한 주택구입자는 일반적으로 월 상환금은 \$2,164로 30년 고정모기지를 선택한 주택구입자들보다 약 \$260 또는 11% 낮은 상환금이었다.

변동금리와 함께 레드핀은 모기지 바이다운을 또 한가지 방법으로 제안했다. 한번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낮은 모기지 금리를 선택하는 것이 바이다운이다.

“몇몇의 대출은행으로부터 모기지 쿼트(quote)를 받아보고 월 모기지 상환금을 낮출 수 있는 모든 옵션들을 잘 알아보아야 한다. 2-1 비율 바이다운 또는 변동모기

지 금리 등의 옵션도 함께 알아보고 가장 좋은 조건을 제공하는 대출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대릴 페어웨더 레드핀 수석 경제학자는 조언했다. “많은 지역 은행은 최근 지역은행 위기 상황에서도 여전히 건재하기 때문에 결코 사전에 배제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한편 셀러의 경우 너무 과도한 가격 책정을 기대해서는 안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주택시장의 냉각은 더 이상 셀러의 시장이 아니다. 넘치는 오퍼들로 인해 모기지 및 인스펙션 컨틴전트를 면제할 수 있던 시간은 지났다. 구매자들은 셀러의 제시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하고 인스펙션에서 발견한 수리금액을 지불하도록 할 수 있다.

매사추세츠 중개인연합의 데이비드 맥카시 회장은 과도한 가격을

제시한 셀러의 경우 추후 이 가격을 다시 낮추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한다.

여전히 수요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해 가격이 급락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수요공급이 균형이 맞기 위해서는 베이비부머가 집을 내놓고 주택신축이 어우러져야 하므로 10여년이 넘게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배니건씨는 “만약 적절한 가격으로 내놓게 되면 여전히 여러 오퍼가 들어올 것이며 제시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팔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결코 2022년과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말이다. 일부 주택은 가격이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지만 이는 시장가격이 내려가서기 보다는 당초 너무 높은 가격을 제시했기 때문일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제주4·3사건 희생자 보상금 2차 대상자 신청 및 지급 안내



I. 보상금 신청

신청기간 2022. 6. 1 ~ 2025. 5. 31 ▶ 4·3중앙위 결정 신청순서에 의거 신청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기간	2022. 6. 1 ~ 2022. 12. 31	2023. 1. 1 ~ 2023. 6. 30	2023. 7. 1 ~ 2023. 12. 31	2024. 1. 1 ~ 2024. 6. 30	2024. 7. 1 ~ 2024. 12. 31	2025. 1. 1 ~ 2025. 5. 31		
인원	2,117 명	2,500 명	2,500 명	2,500 명	2,500 명	1,703 명 + α		

■ 희생자의 사실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시점 또는 마지막 신청기간(6차)에 신청함.

■ 제적부·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희생자 840명
- 8차 추가신고기간(23. 1. 1. ~ 6. 30.) 경과 이후, 유족 결정 후 신청

▶ 4·3종합정보시스템 (<https://peace43.jeju.go.kr>) 에서 신청순서, 신청서식, 진행상황 확인 가능

※ 최초 신청접수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신청순서가 도래하는 신청인에게는 자연이자 지급

보상금액 ■ 사망·행방불명자: 9천만원
■ 수형인: 구금일수를 고려하여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 (9천만원 이하)

수형 / 구금: 형사보상 1일최고액 x 수형(구금)일수 + 위자료(2천만원)
집행유예(금고 이상): 4.5천만원 벌금형: 3천만원

■ 후유장애인: 장애등급, 노동력 상실률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결정 (5천만원~9천만원)

1~3 등급	4~8 등급	9~14 등급
9천만원	7.5천만원	5천만원

■ 제외대상: 4·3관련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 국가배상 및 형사보상금 수령자 차감 지급

신청대상 ■ 생존 희생자: 본인
■ 사망 또는 행방불명 희생자: 민법상 상속권자

신청서류(해외거주자)
■ 보상금 지급 결정 신청서 (시행령 별지 제7호의2서식)
■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여권 및 신분증 사본
- 재외국민: 여권 및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영주권 등 선택)
- 외국국적동포: 여권 및 국적국가 신분증 사본
* 외국 국적취득으로 이름이 변경된 경우는 이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
■ 해외거주자 송달방법 신고서(별지 서식)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별지 서식) 및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 본인서명확인서)
*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국가 등의 경우 서명확인서 등 제출

▶ 제출서류가 외국에서 발행된 공문서(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 포함인 경우 한국어로 번역 공증을 받은 다음 아포스티유(Apostille) 또는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중 담당 영사의 확인을 받아서 제출
▶ 위임장, 서명확인서 등이 필요한 경우 주재국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인증하여 발급 제출

II. 보상금 청구

청구대상 ■ 제주4·3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 결정서 정본 및 통지서 송달받은 사망 (보상금 지급 결정 신청하지 않은 상속인(유보대상자) 포함)


청구기한 ■ 보상금 지급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청구서류(해외거주자)
■ 보상금등 지급 청구서(시행령 별지 제7호의3서식)
■ 보상금등 지급 결정에 대한 동의서(시행령 별지 제7호의4서식)
■ 보상금 지급결정서 정본
■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국가 등의 경우 서명확인서 등 제출
■ 청구인의 금융기관 통장사본
■ 여권 및 신분증 사본
- 재외국민: 여권 및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영주권 등 선택)
- 외국국적동포: 여권 및 국적국가 신분증 사본
* 외국 국적취득으로 이름이 변경된 경우는 이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
■ (해외송금 희망 시) 해외 송금 신청서(별지 서식)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별지 서식) *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국가 등의 경우 서명확인서 등 제출

▶ 제출서류가 외국에서 발행된 공문서(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 포함인 경우 한국어로 번역 공증을 받은 다음 아포스티유(Apostille) 또는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중 담당 영사의 확인을 받아서 제출
▶ 위임장, 서명확인서 등이 필요한 경우 주재국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인증하여 발급 제출

접수 및 문의처
도내 거주자 ▶ 방문 접수
○ 제주시 자치행정과 [4·3지원팀] ☎ +82-64-728-1961~6
○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4·3지원팀] ☎ +84-64-760-3991~4
○ 도내 각 읍면동 주민센터
도외·해외 거주자 ▶ 등기우편 및 방문 접수
○ 제주도 4·3지원과 [보상지원팀] ☎ +82-64-710-8450, 710-8941~6
☎ 63122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제주도청 4·3지원과 [보상지원팀]

요가씨의 5분요가

유튜브 검색창에  요가 읽어주는 여자 hayeon



하체 근력이 중요한 이유 - 살빠지는 전신근력 운동

살을 빼기 위해 무조건 매일 땀이 나도록 운동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걷고 달리는 유산소 운동과 함께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 습관이 함께 병행되어야 하는 것은

대부분 아실텐데요, 거기에 더해 규칙적인 근력 운동은 유산소운동과 함께 체지방을 감소시키고 근력을 향상시켜 효과적인 체중감량을 가져옵니다.

특히 쉽게 살찌는 체질이라 생각되시는 분들은 더더욱 근력을 키워 살이 덜 찌는 체질로 바꾸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 1-2회 정도 반복해 따라하기 좋은

하체 근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운동들을 소개해드릴게요. 특히 평소 무릎이 좋지 않아 하체 운동이 꺼려지셨던 분들은 매우 안전하게 근력 운동하는 방법을 배우시게 될 거예요.

제 유튜브 채널 '요가 읽어주는 여자 hayeon' 에서 최근 영상 중 살빠지는 전신 근력 편을 찾아 따라해보시면

1시간이 순삭~ 쉽고 재미있게 운동하실 수 있을 겁니다.

1. Hip Hinged Lunge with a Chair : 무릎 보호, 둔근 강화, 다리 토닝

1단계 일방적인 런지에서 상체를 살짝 앞으로 보내 골반을 접은 상태를 취해줍니다.

2단계 무릎을 접었다 펼 때 뒷다리를 펴고 바닥에서 뿜 후 뒤로 길게 뻗어줍니다. (영상 참조)

3단계 복부를 수축하고 허리를 곧게 편 상태에서 다시 런지로 내려갑니다.

4단계 10-15회 반복하고 반대 다리도 실시합니다.

TIP! 무릎이 발목보다 앞으로 쏠려 나오지 않게 주의하며 앞에 놓인 엉덩이를 살짝 뒤로 보내며 런지해주세요.



2. Supported Standing Side Crunch : 옆구리 토닝, 코어강화

1단계 의자 등받이를 사진처럼 잡고 몸의 자가 있는 쪽으로 살짝 기울여 줍니다

2단계 반대편 다리와 팔을 접어 옆에서 만나게 크런치해줍니다.

3단계 옆구리를 강하게 수축하며 10-15회 반복합니다.

4단계 의자를 잡고 하다 자세가 잘 잡히면 손을 떼고 해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TIP! 지지하고 있는 무릎은 살짝만 접어 무



릎을 보호하고 복부의 긴장감을 유지하며 중심을 잘 잡아주세요.



3. Fire Hydrant Hip Abduction + Donkey Kick : 둔근 강화, 승마살 정리 및 힙업, 허벅지 토닝

1단계 매트에 무릎을 내리고 의자에 팔꿈치를 사진처럼 내려 자세를 취합니다.

2단계 한다리를 90도로 접은 상태에서 옆으로 올려 허벅지와 옆구리의 자극을 느껴봅니다.

3단계 이번엔 뒤로 킁하며 엉덩이의 자극을 느껴보세요.

4단계 호흡을 일정하게 유지하며 위의 두 동작을 이어서 반복합니다.

TIP! 엉덩이(둔부)의 자극이 올때까지 반복



하고 다음 다리로 옮겨주세요.

하연쌤과 함께하는 라이브 ZOOM요가&필라테스

ZOOM요가&필라테스 클래스의 장점

1.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운동 가능
 2. 최소한의 시간 투자로 '체중감량'은 물론 근력 향상, 유연성 강화, 체형 교정, 스트레스 해소, 우울증 개선의 효과
 3. 꾸준한 개인 회원관리로 지속적으로 생활속 운동루틴을 이어가도록 지도
 4. 모니터를 통한 실시간 '자세교정' (1:1 개인레슨과 그룹수업 모두 가능)
 5. 첫 수업 체험 전, 선생님과 전화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개인의 목표와 NEED 전달, 수업에 대한 만족 극대화
- '기적의 다이어트 요가와 필라테스' 수업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카톡 아이디 yogafullnesslife 나 이 메 일 connect@yogafullness.life 로 신청해주세요.

송하연, 요가티처/요가풀니스라이프 대표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ENG) <http://bit.ly/SubscribeToYogasong>
(KOR) <https://bit.ly/3w9ks4u>
인스타그램 https://instagram.com/yogasong_hayeon
카카오톡 아이디 yogafullnesslife
이메일 주소 connect@yogafullness.life
홈페이지 www.yogafullness.life

형제 떡집

매매 합니다

978.343.6080
978.407.9029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Prescott & Son Insurance
Insurance Producer Moon Hang Lee
한인 보험 대리인 이문항

“보상 내용과 크기는”
적절하고 안전하게
보험료는 저렴하게

사업체 보험
Workers Comp.
개인 자동차 보험
상업용 자동차 보험
집 보험
건물보험

Tel: 781.325.3406
Office: 781.322.2350
Fax: 781.322.3093
mleeins@gmail.com | mlee@prescottandson.com

업무 시간
월-금: 오전 10시-오후 4시
토, 일요일, 공휴일: Closed

태양자동차
Body & Repair / States Inspection

모든 차량 정비 서비스
유럽, 미국
일본, 한국

리페어 워크/바디 워크
사고가 난 차를 원상 복구해 드립니다.
인슈어런스 바디워크 합니다.

노스이스턴대학 자동차 손상평가 자격증
재단장 및 마감 자격증
프레온 가스 취급 자격증

617.868.2500, 617.868.2600
48 NEW ST. CAMBRIDGE, MA 02138
Harvard Sq. 5 min / Lexington 10 min / Newton 20 min
E mail: sunautobody@yahoo.com



I've helped 350+ clients find their place in Greater Boston.

부동산 전문가, 제이슨과 상의하시고 부동산을 통한 경제적인 자유를 (FINANCIAL FREEDOM) 목표하고 계획하세요. 부동산 매매. 투자. 개발 관련 모든 상담을 해 드립니다.

실력, 열정 그리고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더욱 풍성한 2023년 새해가 되도록 큰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Awards:

- 2022 Boston Magazine Top Real Estate Producers
- Wall Street Journal America's Best Real Estate Professionals List

COMPASS

Achieved in 2022

\$22M+

TOTAL SALES & RENTALS

36+

TOTAL # OF TRANSACTIONS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Jason Jeon
Vice President

617.642.5670
Jason.Jeon@compass.com

미국인 47%, 전기차 구매 계획 없다...비싸고 충전 불편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임미나 특파원 = 미국인의 절반가량은 자동차를 전기차로 바꿀 생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결과가 나왔다.

11일(현지시간) AP통신과 시카고대 여론 연구센터(NORC)·에너지정책연구소(EPIC)가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7%는 '다음에 자동차를 살 때 전기차를 구매할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1~2월 미국 성인 표본 5천408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표본 오차는 ±1.7%포인트 수준이다.

전기차 구매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응답은 19%,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22%로, 응답자의 41%가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이 조사 결과를 놓고 보면 향후 전기차 구매 의사가 있다는 응답은 미국인 10명 중 4명꼴인 셈이다.

전기차를 선호하지 않는 요인으로는 응답자 10명 중 6명꼴로 '비싼 가격'을 꼽았다.

미국의 자동차 정보 사이트 '켈리 블루 북'에 따르면 미국에서 판매되는 전기차 신차의 가격은 평균 5만8천달러(약 7천671만원)가 넘는다.

AP는 미국에서 팔리는 전체 자동차 가격이 평균 4만6천달러(약 6천84만원) 아래인



점에 비춰보면 전기차 가격은 미국의 많은 가정이 접근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미국 재무부의 새로운 규정으로 7천500달러(약 992만원)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 가격이 줄어들고, 공제 금액이 절반인 3천750달러(약 496만원) 수준으로 축소될 수 있어 소비자들이 가솔린 차량을 전기차로 바꿀 유인이 되지 못할 것으로 AP는 전망했다.

충전소가 부족하다는 점도 전기차를 선호하지 않는 이유로 꼽혔다.

이번 조사 응답자 중 4분의 3이 "충전소가 너무 적다"고 지적했고, 이들 가운데 절반은 이것이 전기차를 사지 않으려는 주된 이유라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 3분의 2는 "가솔린 차량을 더 좋아해서" 전기차로 바꿀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이런 응답자의 정치적인 성향을 보

면 공화당원의 절반가량인 54%가 '가솔린 차량 선호'를 주된 이유로 꼽았고, 민주당원 중에는 29%가 같은 응답을 했다.

AP통신은 미국 정부가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해 내연기관 차량을 친환경 차로 전환하는 여러 정책을 펴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인식을 보면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mina@yna.co.kr

보스톤코리아 인터넷 신문, 이제 카카오톡 채널로



카카오 채널 친구신청 해주세요

보스톤코리아 신문의 이메일 발송은 기술적인 문제와 Gmail의 정책변화로 당분간 발송이 중단됩니다. 보스톤코리아는 이메일 발송 재개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신문 전달의 다양한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카카오톡 채널로 신문과 각종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의 방법으로 <카카오 채널 친구신청>을 부탁드립니다.

1 2 3



친구신청 하는 방법

1. 바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읽으신 후 나타나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스톤코리아 카카오 채널로 이동합니다.
2. 오른쪽 상단의 노란 버튼의 카카오채널 친구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채널추가 버튼이 중간에 나타납니다.
3. 채널추가를 눌러 주시면 앞으로 보스톤코리아 신문과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선착순 200명중 20명을 선정해서 \$15 아마존 기프트 카드를 드립니다.

"사무실 안 오면 급여 깎는다"... 재택근무 줄이기 유인책

JP모건·로펌 데이비스폴크 "일주일에 최소 3일 출근해야"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코로나19 유행으로 확대된 재택근무를 줄이기 위한 유인책으로 미국 기업들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는 가운데 출근과 급여를 연계하겠다는 방식까지 나왔다.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최근 미국에서 직원들의 사무실 출근을 독려하기 위해 재택근무를 고집하는 직원들에게 급여 감면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월가 대형 은행과 회사를 고객으로 둔 대형 로펌 데이비스 폴크 앤드 웰 LLP는 최근 직원들에게 일주일에 최소 3일간 출근하지 않을 경우 상여금을 깎겠다고 밝혔다.

닐 바 데이비스 폴크 회장 겸 관리 파트너는 "우리는 팀을 동시에 한국에 모으는데 매우 집중하고 있다"며 "직원들이 사무실로 와서 (출근하는) 문화를 형성하는데 일조할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체이스의 운영위원회는 이날 회사 최고 간부인 전무 이사들에게는 일주일에 5일간 회사에 나오라고 통보했다.

재택과 출근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근무 제도를 이용하는 사원들에게는 일주일에 최소 3일은 회사로 출근하라고 지시했다.

JP모건 운영위원회는 이날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출근 일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직원들이 다수 있다"며 "회사의 방침을 따르지 않으면 시정 조치를 포함한 적절한 성과 관리 조치를 할 것"이라고 통지했다.

데이비스 폴크와 JP모건의 이 같은 움직임은 출근 확대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의지를 반영한다.

최근까지 미국 고용시장이 과열되고 직원들이 사표를 던지는 '대퇴사(Great Resignation)' 추세가 이어지면서 경영진들은 회사 출근을 강요할 경우 직원들이 회사를 떠날까 우려해 재택근무를 줄이는 데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이었다.

그러나 경기 둔화로 이 같은 우려가 불식되면서 기업들이 변화를 모색하기 시작했다고 WSJ은 설명했다.

글로벌 콘텐츠기업 월트디즈니도 지난 1월 재택근무를 축소하면서 직원들에게 일주일에 최소 4일간 현장 근무를 요청한 바 있다.

미국 소프트웨어 제조업체 퀘트릭스는 올해 초부터 주 4일 출근을 의무화했다.

dindong@yna.co.kr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식료품점

생산자물가지수 3년만에 최대폭 하락...3월 PPI 0.5P% ↓

(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미국의 생산자 물가가 3년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했다.

미 노동부는 3월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전월보다 0.5%포인트 하락했다고 13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는 2020년 4월 이후 최대폭이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PPI는 지난 달 2.7% 증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는 높지만, 물가가 급등했던 지난해 이후 상황을 감안하면 개선된 수치다.

실제로 2월 PPI는 전년 동월에 비해 4.9% 상승했다.

도매 물가인 PPI는 시장에서 일반

소비자 물가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선행 지표로 받아들여진다.

이 때문에 PPI가 3년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했다는 수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황 해소에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

PPI는 지난달에도 0.1%포인트 하락했다.

에너지와 식품 등을 제외한 근원 PPI는 전월보다 0.1%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시장 예상보다는 낮은 수치였다.

전날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지난 2021년 5월 이후 가장 적은 5.0%의 상승 폭을 기록했다는 통계가 발표된 데 이어 PPI에서도 긍정적인

분위기가 확인됨에 따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다음 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어떻게 결정할지 주목된다

일부 연준 인사들은 긍정적인 경제지표에도 불구하고 물가 수준이 아직도 너무 높은 수준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koman@yna.co.kr



중환 교외아 메디컬 푸어 좋은사람들 성모안과 www.jounye.co.kr

소중한눈!!! 정기검진하시나요?

휴람이 경험많고 정직한 안과에서 당신의 소중한 눈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원장 박성진
 • 20여년 수술집도
 • 2만여건이상 수술

휴람 - 좋은사람들 성모안과 해외동포 특별가 프로그램

- 1. 휴람 안 종합검진 (소요시간 30분 ~ 1시간 30분)**
 - 1) 기본 안검진 10만원
시력검사(나안/안경처방/타각적굴절/노안) / 세극등 현미경 / 안압 / 안저촬영 / 백내장, 녹내장 유무파악
 - 2) 프리미엄 안검진 25만원
각막부터 시신경까지 구석구석하는 안정밀검사로 40대 이상부터 2년마다 추천합니다. 기본 안검진 + 녹내장 / 백내장 / 안구건조증 / 시신경망막 / 기타 필요검사
- 2. 2030 라식라섹 (150만원 ~ 180만원 : 정밀검사 비용 포함)**
 - 불편한 안경과 렌즈에서 해방
- 3. 4050 노안라섹 (노안 + 백내장 해결) (180만원 : 정밀검사 비용 포함)**
 - 노안이 와도 돋보기와 안경도 벗는 꽃중년 라섹
- 4. 다초점 인공수정체 백내장수술 (429만원 : 단안)**
 - 노안 + 난시 + 백내장 동시 해결

※ 상기 비용은 개인별 눈상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휴람을 통한 예약시 혜택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전화(Call for Free)
 1-844-DOHURAM (1-844-364-8726)
 010-3469-4040 | ID : huramkorea
 huram@huram.kr | www.huramkorea.com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온갖 구독 다 했는데 이용 안해 돈 아까워"…美서 해지 봇물

물가 상승 등 빠듯해진 살림에 OTT 등 구독 취소부터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온라인 동영상(OTT)에서 음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이뤄지던 구독 서비스가 인기를 잃어 가고 있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개인 금융 애플리케이션(앱) '로켓 머니'에 따르면 최근 2분기 연속으로 OTT를 비롯한 디지털 서비스 멤버십, 정기 음식 배달 등 서비스 구독을 취소한 건수가 신규 구독 건수보다 많았다.

또한 미국의 구독 서비스 분석업체 안테나는 지난해 넷플릭스와 훌루, HBO 맥스 등 OTT 구독 취소가 전년 대비 49% 증가한 것으로 집계했다.

글로벌 밀키트 배달 전문 업체 헬로프레시도 최근 실적 발표에서 활성 이용자가 지난해 3분기 800만 명에서 4분기 710만 명으로 감소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더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구독 서비스 붐이 꺾인 데는 물가 상승 등 경제적 요인이 크다고 WSJ

은 분석했다. 생필품 가격이 오르고 살림살이가 뻣뻣해지자 사람들이 구독해놓고 이용도 잘 하지 않고 있던 서비스를 가장 먼저 지출을 줄일 곳으로 여기게 됐다는 것이다.

핀테크 업체 크레딧 카르마의 지난해 12월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3분의 1은 잘 사용하지도 않는 구독 등 서비스에 정기적으로 돈을 지불했던 경험을 가장 큰 재정적 실수로 꼽았다.

시장조사 기관 C+R 리서치의 지난해 조사 결과에서는 미국인들이 매달 구독 서비스에 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금액은 86달러(약 11만원)였는데, 실제로는 그보다 133달러(약 17만원)를 더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하이오주(州)에 사는 은퇴자 존 리칭거(72)는 결제 뒤엔 막상 손이 잘 가지 않는 구독 서비스를 취소해 음식 등 생필품을 위한 돈을 넉넉히 확보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리칭거는 한 달에 45달러(약 5만9천 원)를 지불하던 자동차 위성 라디



대표적인 OTT서비스 넷플릭스

오 서비스를 해지한 데 이어 매달 받아왔던 잡지 구독을 끊었다. 각각 연간 1천 달러(약 132만 원), 750달러(99만 원)를 내고 이용했던 컨트리클럽 식사 멤버십과 해충 방제 서비스도 해지했다.

버지니아주에 거주하는 딜런 케니(27)도 동거인과 OTT 계정을 결합하고 헬로프레시 구독을 취소하면서 한 달에 270달러(약 35만 원)를 절약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헬로프레시 구독은 직접 식료품점에 가서 장을 보는 것보다 매달 150달러(약 19만 원) 더 들어간다는 사실을 최근에서야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런 추세에 발맞춰 그간 구독 서비스 확장에 나섰던 기업들도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고 있다.

강아지 용품 정기 배달을 앞세웠던 반려동물 물품 업체 '바크'는 노선을 틀어 비(非)구독 제품에 더 공을

들이기로 최근 결정했다.

2020년부터 매달 '이달의 고기'를 선정해 구독자 집으로 보내줬던 일리노이주 레스토랑 '소울 앤 스모크'도 수요가 급락한 이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다.

그대신 손님이 직접 식당에 나와 음식을 먹는 공간을 확충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꾸리는 등 오프라인 사업에 집중하는 게 이 레스토랑의 계획이다.

매일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 BostonKorea.com에서 매일매일 새로운 기사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 보스톤코리아닷컴을 스마트폰에 즐겨찾기로 저장해 주세요.
- 보스톤코리아닷컴을 데스크탑에 북마크로 저장해 주세요

보스톤코리아

'전광훈 리스크' 뿔난 김기현...홍준표 해촉 이어 추가 강경카드

리더십 위기로 속홍에 먼저 '옐로 카드'...자숙 김재원 공식 징계 가능성도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류미나 기자= 최근 '전광훈 리스크'를 계기로 당 안팎에서 리더십이 거론돼 온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3일 홍준표 대구시장을 당 상임고문에서 전격적으로 해촉하면서 추가로 강경 카드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김 대표의 이날 조치는 자신의 리더십을 둘러싼 의구심을 해소하려는 동시에 당 지지율 하락세 수습을 위해 본격적으로 '칼을 빼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읽히기 때문이다.

전광훈 리스크는 3·8 전당대회 이후 '진윤(진윤석열) 당직 인선' 등으로 불거진 당 지지율 하락세를 더 부채질하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김재원 최고위원의 잇따른 실언이 계기가 됐다.

지난 달 12일 전 목사가 주관하는 예배에 참석해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이어 같은 달 25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린 강연회에서의 '전광훈 우파 천하통일' 발언까지 김 최고위원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는 최근 당 지지율 하락을 가속하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됐고, 김 최고위원은 공개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자숙'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홍 시장은 '전광훈 손절' 뿐 아니라 김 최고위원 중징계를 주장해왔다.

특히 김 대표에게 '강단 있는 리더십'을 주문했으며, 이는 김 최고위원을 징계하지 않는 김 대표에 대한 비판으로 읽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전대 한 달여 만에 리더십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됐고, 결국 김 대표는 이날 전격적으로 '상임고문 해촉'이라는 카드를 통해 '김기현 흔들기'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3일 서울 구로구의 한 카페에서 열린 일하는 청년들의 내일을 위한 두 번째 이야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당내에서는 김 대표가 홍 시장 해촉에 그치지 않고 김 최고위원에 대한 공식적인 징계까지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 목사 리스크를 일으킨 장본인인 김 최고위원에 대한 조치가 없으면 홍 시장 해촉과 균형을 맞추기도 어렵다는 논리다.

'쓴소리하는 인사만 징계한다'는 비판론이 나오는 상황도 부담스러울 수 있다.

당장 홍 시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상임고문직 해촉과 관련, "김 대표에게 '강단 있게 하라'고 했더니 뜬금없이 나에게만 강단 있게 대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홍 시장은 또 페이스북에서는 "문제 당사자 징계는 안 하고 나를 징계한다? 이참에 욕설 목사를 상임고문으로 위촉하시라"고 비꼬기도 했다.

이준석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 "정당에서 당내 구성원이 조금이라도 다른 의견이 있으면 윤리위로 몽둥이 째질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상임고문 면직'까지 나온다"고 적었다.

김 최고위원 징계 가능성은 김 대표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식 이던 중앙당 윤리위원장에 황정근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더 커졌다는 시각도 있다.

황 윤리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김 최고위원 징계와 관련한 질문에 "당헌·당규에 입각해 윤리위가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 대표는 최고위 회의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최고위원 징계를 윤리위에서 검토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윤리위는 독자적으로 안건을 상정하고 진행하기에 당 대표가 관여할 수 없게 돼 있다. 윤리위가 독립적으로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SMART DENTAL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H MART

BURLINGTON/QUINCY WEEKLY SALE APR. 14th - APR. 20th, 2023

Follow us @hmartofficial H MART MA



KEEP CALM AND UN-HURRY YOUR CURRY WITH JAPANESE CURRY UDON
Um um um, it's unanimous, you'll taste heaven with this flavorful umami curry dish!

부드러운 면발과 진한 카레국물이 일품인 카레우동을
H 마트와 함께 만들어보세요!



<p>Honey Ataulfo Mango 허니 아툴포 망고 BOX \$14.99</p>	<p>Packed Garlic 팩마늘 5 PCS/PKG \$1.99</p>	<p>Malanga 말랑가 LB \$1.29</p>	<p>Fuji Apple 후지사과 LB \$1.99</p>	<p>Korean Singo Pear 한국 신고배 BOX \$34.99</p>
<p>Eddo 토란 LB \$1.49</p>	<p>Green Seedless Grape 씨없는 청포도 LB \$2.99</p>	<p>Hass Avocado 헤스 아보카도 EA \$0.99</p>	<p>PULMUONE Tofu 풀무원 두부 SOFT/FIRM/SILKEN 16 OZ/PKG FOR \$3.99</p>	<p>Sweet Potato 고구마 LB \$2.49</p>

신선한 정육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p>Fresh Boneless Beef Ribeye Steak 생 뼈없는 소등심 (스테이크용) SIZE 10 UP/LB \$9.99</p>	<p>Fresh Beef Tenderloin 생 소안심 WHOLE/LB \$8.99</p>
<p>Fresh Boneless Pork Loin for Cutlet 생 돈가스 LB \$4.99</p>	<p>Fresh Chicken Wing 생 닭 날개 LB \$3.99</p>
<p>Frozen Pork Single Belly for BBQ 냉동 돼지 삼겹살 (바베크용) FAMILY PACK/SLICED/LB \$5.99</p>	<p>U.S.D.A. CHOICE Marinated Beef Short Ribs (LA Style) 양념 LA 갈비 LB \$9.99</p>

싱싱한 수산물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p>Frozen Beltfish 통갈치 700-1000'S/LB \$3.99</p>	<p>Headless White Shrimp 머리없는 흰새우 26-30'S/LB \$5.99</p>
<p>TONGTONGBAY Frozen Cooked Shrimp 통통배 절단 꽃게 1.5 LB/PKG \$8.99</p>	<p>TONGTONGBAY Frozen Cooked Shrimp 통통배 쿡새우 100-200'S 1 LB/PKG \$6.99</p>
<p>FIESTA DEL MAR Frozen Calamari 캘리포니아 오징어 2.2 LB/PKG \$10.99</p>	<p>FRI/SAT/SUN ONLY 금, 토, 일 한정판매 Fresh Catfish 메기 LB \$1.99</p>

SMART CARD MEMBER ONLY

<p>H MART SMART CARD ONLY ORGANIC FARM Premium Organic Short Grain Rice 유기농장 유기농쌀 15 LB \$49.99</p>	<p>H MART SMART CARD ONLY NONGSHIM Shin Bowl Noodle Soup 농심 신 사발면 3.03 OZ X 12 EA/PKG \$14.99</p>
<p>H MART SMART CARD ONLY JINGA Abalone Porridge 진가 전복죽 14.8 OZ X 3 EA/BOX \$11.99</p>	<p>H MART SMART CARD ONLY ARIZONA FARM Honey Powder 아리조나 팜 허니 파우더 1 LB FOR \$5</p>

<p>YECHON Korean Rice 예천 일품쌀 22 LB \$24.99</p>	<p>NONGSHIM Chapagetti Jjajang Noodles 농심 짜파게티 4.5 OZ X 4 EA/PKG \$4.99</p>	<p>HAI O Yaki Sushi Nori Premium Roasted Laver 해오름 구운 스시김 50 SHEETS 4.93 OZ \$6.99</p>	<p>OTTOGI Dried Seaweed 오투기 옛날 미역 8.82 OZ \$11.99</p>	<p>JINGA Salad Dressing for Onion/Scallion 진가 양파절임/파채 양념 소스 10.22-10.58 FL OZ 2\$5</p>
<p>ESENCIA Grape Seed Oil 에센시아 포도씨유 33.8 FL OZ \$7.99</p>	<p>KADOYA Pure Sesame Oil 가도야 참기름 56 FL OZ \$17.99</p>	<p>PULMUONE Sliced Pickled Radish 풀무원 무쌈 RADISH/RADISH WITH PERILLA LEAVES 10.58 OZ FOR 2\$7</p>	<p>CHUNG JUNGONE Sweet Potato Glass Noodle 청정원 민속 당면 1.1 LB \$5.99</p>	<p>GREEN LAND Rice Paper 그린랜드 라이스페이퍼 22 CM/12 OZ \$2.49</p>
<p>ORION Marine Boy Snack 오리온 고래밥 (양념맛) 1.41 OZ FOR 3\$3</p>	<p>CROWN Corn Chips 크라운 콘칩 5.22 OZ \$2.99</p>	<p>Yellow Aluminum Pot 한국산 양은 황냄비 PRODUCT OF KOREA 20 CM/EA \$9.99</p>	<p>KüHAUS Health Care Electric Foot Massager 쿠하우스 헬스케어 발 마사지기 GRAY/PINK FOR \$69.99</p>	<p>Clear Utensil Case 투명 사각 수저함 GREEN/BEIGE EA \$3.99</p>

TOBAGI KOREA'S GREATEST GIFT, MADE FRESH IN AMERICA.

Flavorful Apples, Korean Hot Peppers, Delicious Cabbage...
Just Some of the many better ingredients that make our TOBAGI Kimchi the one you crave. Find it exclusively at H Mart.

한국인의 자존심, 토바기 김치! 최고품질의 재료들로 직접 정성들여 만들어 더욱 맛있습니다.

CUSTOMER SERVIC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BURLINGTON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QUINCY
101 Falls Blvd.
Quincy, MA 02169

음식점으로 성공창업을 원하신다면 지금 연락주세요!
JOIN MARKET EATERY FOOD HALL! CONTACT: me@hmart.com
Have a great idea for a restaurant, we have the perfect busy location for you.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이사 이제봉
DIRECTOR
781.654.5281
jlee@bostonpremierrealty.com



마케팅디렉터 스티브 김
MARKETING DIRECTOR
508.326.6285
sokim@bostonpremierrealty.com



팀장 한준희
ASSOCIATE DIRECTOR
617.586.9192
jhwan@bostonpremierrealty.com



매니저 캐시 김
BRANCH MANAGER
of Hadley Branch
414.313.4165
kashong@bostonpremierrealty.com



매니저 크리스틴 김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773.968.2651
okim@bostonpremierrealty.com



매니저 신보경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508.361.6064
kshin@bostonpremierrealty.com



대표 나원태
PRESIDEN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TOP 에이전트가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Residential / Commercial / Business / Investment / Property Management



다예나 김
617.217.2037
daeyeon@bostonpremierrealty.com



줄리 김
987.484.2043
julie@bostonpremierrealty.com



나키 박
617.447.0591
knap@bostonpremierrealty.com



피터 파크
617.780.7029
peter@bostonpremierrealty.com



지나 최
978.866.5248
jchoi@bostonpremierrealty.com



이준군
617.542.5728
lee@bostonpremierrealty.com



사라 유
617.838.5787
saryoo@bostonpremierrealty.com



그레이스 김
617.455.7710
grace@bostonpremierrealty.com



최현민
617.877.0587
hmin@bostonpremierrealty.com



황수전
617.538.8975
hjeon@bostonpremierrealty.com



이은주
401.935.3397
lee@bostonpremierrealty.com



리사 송
213.933.8997
lisa@bostonpremierrealty.com



미키 최
415.507.1402
miki@bostonpremierrealty.com



이영운
781.892.3412
eeyun@bostonpremierrealty.com



셀리 림
781.690.4939
selby@bostonpremierrealty.com



한세욱
781.996.1214
han@bostonpremierrealty.com



차민정
617.515.1162
chamin@bostonpremierrealty.com



손상환
617.313.3369
sunghwan@bostonpremierrealty.com



레이미 김
617.852.7485
raimi@bostonpremierrealty.com



김기태
617.721.8888
kigeon@bostonpremierrealty.com



Tammy Woolfolk
617.224.5510
tammy@bostonpremierrealty.com



메리첸 유
617.935.2713
michele@bostonpremierrealty.com



Shirley Zhao
857.231.0316
shirley@bostonpremierrealty.com



Song Chen
978.277.8430
song@bostonpremierrealty.com



Xian Dole
413.532.8979
xian@bostonpremierrealty.com



Lu Jie
240.449.0117
lu@bostonpremierrealty.com



Nancy Wang
617.220.9952
nancy@bostonpremierrealty.com



Rishi Chopra
617.897.1191
rishi@bostonpremierrealty.com



Henry Nguyen
617.864.8041
henry@bostonpremierrealty.com



Jun Wang
646.270.2923
jun@bostonpremierrealty.com



Lil Wang
617.998.7212
lil@bostonpremierrealty.com



John Tran
617.933.8182
john@bostonpremierrealty.com



Rebecca Phu
617.833.1088
rebecca@bostonpremierrealty.com



Michael Somme
978.873.6076
michael@bostonpremierrealty.com



Linda To
857.210.8830
linda@bostonpremierrealty.com



제이크 김
781.956.5438
jake@bostonpremierrealty.com



이상현
857.280.0434
isang@bostonpremierrealty.com



앤드류 리
857.540.1588
andrew@bostonpremierrealty.com



Sasha Shapiro
617.610.8795
sasha@bostonpremierrealty.com



Anthony Tran
857.208.4059
anthony@bostonpremierrealty.com





홈 리노베이션

배관, 전기, 난방

홈 익스텐션, 핸디잡

커머셜 시공



WE BUILD FOR YOU

좋은 사람들이 모여 모든 프로젝트에 항상 진심으로 임하고, 다양한 레벨의 맞추어진 인력이 투입되어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건축가,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포함한 전문 인력을 통해 공정 관리를 합니다. 고객님의 행복을 위해 저희의 모든 능력을 기여 할 것입니다.

PREMIER WORKS

617.838.4980

support@bostonpworks.com

'백가쟁명'으로만 끝난 20년 만의 전원위...공은 다시 정개특위로

의원 중 일부도 '무용론' 제기...난상토론 아닌 '릴레이 자유발언' 한계 지적, 김의장 "비례성·대표성 강화, 지역소멸 대응·지역주의 완화 공감대 형성" 평가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한주홍 기자 = "20년 만에 열린 국회 전원위원회가 13일 막을 내렸다.

지난 10일부터 나흘 동안 본회의장 연단에 오른 국회의원 100명은 제각기 현 선거제를 진단하는 한편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에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다.

전원위를 처음 제안한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구체적 대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지만,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고 지역소멸에 대응하며 지역주의를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흐름에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난상토론이 아닌 릴레이 자유 발언 형식으로 진행되면서 결과적으로 '백가쟁명'에 그쳤다는 지적이 전원위에 참여한 의원들로부터도 나왔다.

◇ 소선거구제 vs 중대선거구제...여야 당내에서도 의견 엇갈려

선거구제 개편 및 의원 정수 확대·축소, 비례대표 확대·폐지 등 핵심 사안을 놓고 여야의 입장 차이는 극명하게 드러났고, 각 당내에서도 도시와 농촌, 선수(選數) 등 의원 개개인의 처지에 따라 입장이 갈렸다.

우선 한 지역에서 1명을 선출하는 현행 소(小)선거구제와 지역구별로 2명 이상의 의원을 뽑는 중대(中大)선거구제를 두고도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비수도권·농촌 지역 대표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수였다.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2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가 열리는 가운데 의석 상당수가 비어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현행 소선거구제에 승자독식 문제가 심각한 만큼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책임성 측면에서 소선거구제의 장점이 분명하다"(이장섭 의원)며 소선거구제를 옹호하는 의견이 나왔고,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소선거구제 역사는 한마디로 거대 양당제 싸움판의 역사"라며 개편을 주장하는 등 같은 당내에서도 다른 의견들이 돌출

했다. 애초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넘어온 ▲ 동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3가지 결의안 중에서 중지를 모으겠다는 전원위 목표는 달성되지 못했다.

◇ 의원 정수·비례대표 확대 vs 축소...여야이견에 전원위 무용론까지

여야는 의원 및 비례대표 숫자 문제를 놓고도 현격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김기현 대표의 '최소 30명 감축' 주장에 맞춰 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개진했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정수 축소는 국회 가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취지다.

같은 맥락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비례대표 축소 또는 폐지 의견도 많이 제기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정치 협오에 편승한 포퓰리즘'이라며 의원 정수 축소에 대체로 반대했다.

비례대표에 대해서도 오히려 현행 의원 정수 내에서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위성정당' 출현을 부른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데는 여야 간에 별다른 이견이 없었지만, 대안은 권역별, 개방명부식, 기존 병립형 등 의견 일치 지점이 없이 제각각 쏟아졌다.

이에 "의원들 개인의 의견들이 무질서하게 쏟아져 나왔을 뿐"(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진지한 숙의 과정이 아니라 남는 것 없는 말 잔치로 끝나고 있다"(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라는 등 전원위 무용론이 제기됐다.

◇ 공넘겨받은 정개특위...공론조사 등 후속 조치

전원위가 막을 내리면서 선거제 개편의 공은 다시 정개특위로 넘어

갔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정개특위가 4월 30일 (활동 기한이) 만료된다. 민주당과 협의해서 기간을 연장해 계속 논의를 이어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전원위에 소위를 구성해 나흘간의 의원들 발언에 등장한 선거제 개편 구상을 정리하자고 제안했다. 구성 여부와 방식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전재수 의원은 통화에서 "소위가 구성되면 전원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유형화가 가능하고 그걸 통해서 협상이 가능한 수준으로 합의안을 만들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개특위는 오는 8일부터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 총 3차례의 공론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1차 여론조사는 전국만 18세 이상의 성인남녀 5천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다음 달에는 권역별·성별·연령별로 비례 모집한 500명의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2차·3차에 걸친 속의 공론조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치학자·법학자 등 선거제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도 준비 중이다.

한편, 국회의장실이 지난 11~12일 국회 출입 정치부 기자 609명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 대부분(96.2%)이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선거제 개편 방향으로는 중대선거구제(60.6%)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13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을 견학 온 초등학교 학생들이 전원위원회를 지켜보고 있다.



수잔리 부동산

“수잔 부동산은 미국 최고 부동산 회사 Keller Williams Group과 팀워크로 전문적 정보와 네트워크를 가지고 여러분의 재산을 소중히 합니다. 오랜 부동산 거래 경험과 다양한 투자 노하우로 성공적 투자, 여러분의 재산 증식에 최선을 다합니다.”

셀러(Seller Representative):

리스팅 전문. CMA(Comparative Market Analysis)를 통한 집 가격 산정

바이어(Buyer Representative):

탁월한 협상. 전문적인 정보로 여러분의 재산 증식을 도모

투자(Investment):

전문적 부동산 마켓 인사이트 컨설팅으로 성공적 투자 컨설팅

* 조지아 아틀란타 투자 상담 문의 환영합니다.

수잔리 부동산 대표

MA Licensed Realtor
CEO, The Pro Realty Group
CEO, 조지아 Keller Williams 수잔리 부동산

NAR(미 전국 부동산 협회) 정회원
GBAR(보스톤 부동산 협회) 정회원
NAMAR(조지아 부동산 협회) 정회원
Multi Million Dollar Producer



CLHMS
Certified Luxury Home Marketing Specialist
럭셔리 홈 마케팅 스페셜리스트



ABR
Accredited Buyer Representative
공인 바이어 전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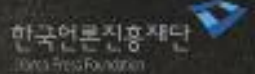


TEL: 339.224.1512, 카카오톡 ID: susan 1223
Email: susan@prorealty.group
Website: findhomesinma.net
245 First St. Cambridge, MA 02124





이 광고를 보는 한국연변신문사원의
정부를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발행되었습니다.



오후 6:30

곧 도착! 주차하고 갈게!!!



오빠 어디야? 난 다 왔어~

오후 6:30

서로의 위치는 확인했지만 눈앞의 위험은 확인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보행 중 교통사고 60% 이상이 스마트폰 사용 중 발생합니다.

국인 김규연 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1 공익광고 공모전 수상작



성안두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St. Anne (Daveluy) Parish in Corpus Christi

- 성목요일 (4/06)
8pm-주의 민찬미사
- 성금요일 (4/07)
3pm-십자가의 길
8pm-수난예절
- 성토요일 (4/08)
9pm-부활 성야미사
- 부활절 (4/09)
3pm-부활대축일 낮미사 및 서례성사



45 Ash St. Newton MA 02466 / 617-558-2711
stadvparish@gmail.com / stdaveluychurch.org
www.facebook.com/stdaveluy

하나님을 기뻐하는교회를살을노래하는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합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톤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임목사 유경렬



핸디맨 앤디

플러밍, 변기, 욕조, 전기
상가, 가정집, 신, 증축
목수일, 마루, 타일 etc.
식당 후드팬,
식당 장비 수리



상담문의 **508.381.9519**
508.685.7688



간판 및 사인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ing,
Car Sign, All Types of Signs.

617.470.1083
choisigns@yahoo.com

보스톤코리아 광고 모집 문의

617.254.4654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Dry Cleaners for Sale

세탁소 매매 385K Charlestown, Boston 연매상 479K	세탁소 매매 2Million 부동산포함 Charlestown, Boston 연매상 479K
--	---

Watertown
연매상 350K

781.883.5984

여러분의 사업의 동반자 온라인 주문과 예약이 가능한 컴퓨터

신뢰할 수 있는 크레딧 카드
머천트 서비스 제공, 컴퓨터와
연결 및 다양한 프로그램
세탁소, 식당, 살롱 컴퓨터 세일,
설치, 트레이닝, 아프트 서비스 제공.
무료 방문 상담해 드립니다.



Email : mchae@dependableusa.com
web : dependableusa.com

디펜더블 컴퓨터 781.858.1155, 781.727.4325

USGTF 골프 티칭프로 자격증 시험

대상 : 뉴잉글랜드 지역 거주인
일정 : 매년 7월
장소 : 보스톤
문의 : 최성조 마스터 프로(시험감독관)
전화 857.600.6755
이메일: sj.usgtf@gmail.com

857.600.6755 
마스터 US 월드 티칭 프로
UNITED STATES GOLF TEACHERS FEDERATION
Leader in the Field of Golf Instruction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Tel. 508-740-9188

40 Celebrating years Since 1982 H MART

OUR LOWEST PRICE!
가격을 확! 내립니다

U.S.D.A. CHOICE 양념 LA갈비 \$9.99 LB

APR. 13TH - APR. 20TH, 2023



Tender & Flavorful

MARINATED SHORT RIBS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Burlington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Cambridge 581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Quincy 101 Falls Blvd, Quincy, MA 02169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732) 재정교육(Financial Literacy)의 달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미국에서는 4월을 재정에 관심을 두는 달로 설정하여 기본적인 재정교육에 힘을 쓰고 있다. 주식투자, 채권과 이자율 관계, 복리계산, 신용카드 이자율, 주택융자금, 학자금 투자, 은퇴 투자, 등 살아가는데 필요한 재정 상식은 무수히 많다.

우리 한인인 부동산 투자를 선호한다. 부동산 투자 외에는 다른 투자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에 비교해 볼 수도 없다. 그래서 만 저불(?) 수 있는 부동산에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다. 주택융자금도 빨리 갚는 것이 이자를 내지 않기에 재정적으로 이익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주택융자금 이자율이 3% 혹은 4%라고 가정할 때 어느 곳에 투자하여 수익률이 약 7%를 받을 수 있다면 주택 융자금을 빨리 갚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것이 제대로 된 재정교육 혹은 재정 상식이 필요한 이유이다.

*시간과 끈기: 도박이나 주식 대박은 단 기간에 투자 돈이 불어나기를 기대한다. 생각한 대로 돈이 불어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이렇게 될 확률은 매우 희박하다. 본전만 유지해도 다행이다. 제대로 하는 투

자는 장기간에 투자 돈이 꾸준히 불어나게 하는 것이다.

작년 주식시장이 거의 20% 폭락했다. 그러나 작년을 포함한 지난 10년의 연평균은 12.5%이다. 주식시장이란 미국 500대 기업의 평균 수익률을 말하는 것이며 10년 전 주식시장 투자는 현재 거의 3배로 불어나는 놀라운 수익률이다. 투자 복리(Compound Interest) 효과를 받기 위해서는 절 대적으로 시간이 필요하다. 한국의 '빨리 빨리 문화'는 주식 투자에 가장 치명적이다. 조급한 마음은 놀라운 주식시장 수익률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투자 실패로 이어지게 한다.

*저축과 투자: 일반 투자자는 투자할 때 대박 나는 종목을 선택하고자 한다. 투자하는 시점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저축 해야 한다. 주식시장은 주기적으로 오르고 내림을 반복한다. 그러나 \$100에서 \$100을 더 저축하면 100% 상승이다. 어떤 뛰어난 투자 방법이 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저축이 투자의 첫걸음이고 부를 축적하

는 기본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최근 현금 과같은 머니마켓(Money Market) 투자 수익률이 약 4.5%이다.

*투자 경비: 투자자 대부분이 투자하며 발생하는 모든 경비가 얼마인지 정확히 모른다. 투자자가 알고 있는 비용은 모든 경비의 한 일부분이다. 금융상품 파는 사람, 주식브러커, 재정설계사, 대부분이 숨어있는 경비를 말해 주지 않고 재정문서에도 나오지 않는다. 모든 금융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자선사업가가 아니다. 이 '세상에 공짜는 분명히 없다(No free lunch)'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평생 힘들게 번 돈을 투자하며 비용으로 나가는 돈을 확인하지 않는다. 한국인의 정서상 투자비용에 관한 질문을 꺼내는 것조차 매우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해하기 쉬운 간단한(Simple) 투자: 금융상품이나 투자상품은 대부분 복잡하다. 두툼한 안내서(Prospectus) 전체를 읽어보기도 어렵고 읽어도 이해하기 어렵다. 일반인이 한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이해한다는 것도 어려운데 연준에서 발표

되는 여러 경제통계 등을 이해한 다음 투자 결정을 한다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일이다.

*투자 보장: 투자해서 손실을 경험한 사람, 투자를 처음 하는 사람, 은퇴한 사람, 등을 포함해서 많은 투자자가 원하는 것은 원금을 보장(Guarantee)하며 수익이 난다는 투자이다. 그러나 모든 투자에는 위험성(Risk)을 동반한다. 투자가 무엇을 '보장' 한다고 말하면 일단 조심해야 한다. 이런 투자상품에는 숨어있는 비용이 분명 존재하고 부과되는 비용 역시 높을 것이다. 경비가 높은 투자일수록 수익률은 오히려 떨어진다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

하루하루 바쁘게 돌아가는 이민 생활에서 모든 재정 상식을 이해하고 생활에 반영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나의 소중한 돈이 어디에 어떻게 투자되고 투자비용이 얼마인지, 투자수익률이 얼마인지, 등을 정확히 알고 투자해야 한다. 제대로 하는 투자로 한인 동포 모두가 주식시장의 놀라운 수익률을 남에게 주지 말고 본인 호주머니에 간직하기를 희망해 본다.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화랑세기花郎世紀, 32세 풍월주風月主 신공信功(16)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를 주려하니 받으라고 하였다. 이에 이견대利見臺(439)에 가서 보니, 바다 위로 떠오르는 섬에 대나무가 있었는데, 낮에는 돌로 나뉘고 밤에는 하나로 합쳐졌다. 풍우가 일어난 지 9월 이 지나 왕이 그 산에 들어가니 용이 흑옥대黑玉帶를 바쳤고, 왕에게 그 대나무로 피리를 만들어 불면 천하가 태평해질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왕은 용의 예언대로 피리를 만들어 불으니 나라의 모든 근심 걱정이 해결되었다. 그래서 그 피리를 '만파식적'라 불렀고 그 피리를 불면 물려왔던 적군도 물려갔고, 병도 낫고, 흉수나 기름도 해결되었다.

이렇게 만사가 해결되는 국보를 효소왕 때 분실하기도 하였다. 그 피리를 찾는 과정에서 말갈족에게 납치되었던 화랑 부례랑을 되찾아 오게 되자 그 피리의 이름은 '만파파식적'으로 격을 높여 불렀기도 했다.

그리고 김효양(추존왕 명덕왕, 제38대 원성왕 김경신의 아버지)의 가문에서 대대로 보관해 오던 그 피리를 효양이 아들 경신이 왕위에 오르자 그에게 주었다. 김경신은 왜국 등이 만파식적을 노렸기에 더욱 깊숙히 숨겼다.

고려 광종 때 경주객사에 동경관을 지으면서 그곳에 보관했다고 한다. 1592년 임진왜란 도중 화재로 유실되었다. 그래서 광해군 때 경주 부윤이 신묘한 옥피리가 유실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 하여 옛 모습을 상고해서 새로 만들었다(현존하는 피리 중의 하나가 그것이라고 믿는다). 1690년, 폭우로 무너진 동경관의

담장을 보수하다가 누군가가 감춘 것으로 보이는 옛 옥피리를 김승학이라는 향리가 찾았다고 한다. 그는 아무도 모르게 집으로 가져가 죽을 때까지 소유했다. 1707년, 그가 죽자 그 피리가 임진왜란 때 유실된 진품이라고 추측해 관아에서 압수하여 다시 동경관에 보관하였다(이 피리도 현존하고 있다). 1909년 일제에 의해 창경원 어원박물관으로 옮겨 보관하다가, 경주박물관이 건립되자 다시 경주로 가서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다.

도중에 잃어버리고 다시 찾는 등 만파식적의 진품일 가능성은 의문이 들지만 현존하는 두 옥피리도 분명히 조선시대부터 이어진 유물이 확실하기에, 문화재의 가치, 즉 상징적과 역사적 가치는 충분하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만파식적은 신라의 삼기팔괴(三奇八怪(440))의 하나로 보물 중의 보물이었다.

439) 신문왕은 아버지 문무왕을 동해에 장사지낸 뒤, 참배하기 위해 해중릉이 잘 보이는 바닷가 언덕 위에 이견대를 지었다. 현존하는 이견정利見亭은 물론 당시의 것이 아니고 1979년에 건축하였다(사적 제159호).

440) 삼기팔괴(三奇八怪)는 신라(또는 경주)의 세계의 보물과 여덟 곳의 풍경을 말한다. 삼기는 금척金尺과 옥적玉笛과 화주火珠를 말한다. 금척은 박혁거세가 가지고 있던 자라다(병든 사람이나 죽은 사람의 치수를 재면 병이 낫고 다시 살아났다고 한다). 옥적은 신문왕의 만파식적이다. 화주는 선덕여왕이 가

지고 있던 구슬이다(햇볕에 비추면 숨에 불이 붙어서 화주라고 하였다).

팔괴는 1. 계림황엽鷄林黃葉은 계림의 풍경을 말한다. 2. 금장낙안金丈落雁은 현재의 현곡면 금장리에 있었던 금장대를 말한다(2012년에 복원되었다). 3. 나원백담羅原白塔은 현곡면 나원리의 절터에 있는 오층석탑을 말한다(국보 제39호). 4. 남산부석南山浮石은 경주 남산에 살짝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바위를 말한다. 5. 문천도사蚊川倒沙는 시냇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듯한 문천(남천)의 모래를 말한다. 6. 백물송순柏栗松筍은 소나무에는 원래 새순이 나지 않는데 경주 백물사(목에서 흰피가 솟았다는 이차돈이 처형 당한 장소)의 소나무는 가지를 치고 나면 다시 새순이 돋아났기에 이를 가리켜 백물송순이라고 했다고 한다. 7. 불국영지佛國影池는 아사달의 전설이 있는 영지 호수에 비친 불국사의 전경을 말한다. 8. 압지부평鴨池浮萍은 안압지의 부평초가 동동 떠다니는 모습을 말한다. 그리고 팔괴에 끼기도 하는 금오만하金鰲晚霞(금오산의 저녁노을)와 서산묘연西山募煙(선도산에서 바라보는 아침햇살)이 있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화랑세기-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한국사데이터베이스(db.history.go.kr)

681년 화랑의 풍월주 제도를 폐지했던 자의 왕후는 문무왕의 부인이다. 그들의 장남 정명은 조졸하였기에 차남 소명이 왕위를 이으니 그가 제 31대 신문왕이다. 문무왕과 신문왕 부자에 관한 이야기로 '만파식적萬波息笛' 설화가 전한다. 삼국사기에 그 피리에 관해 언급하였지만 괴이하여 믿을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다. 삼국유사에는 비교적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삼국통일을 이룬 문무왕은 자신이 용이 되어 왜구를 막겠다고, 자신이 죽은 후 시신을 화장하여 유골을 동해에 묻어 달라는 유언을 남겼다. 이에 신문왕은 부왕의 유골을 동해 앞바다 대왕암에 안장하였고, 문무왕릉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해중왕릉이 되었다. 그리고 신문왕은 즉위와 함께 문무왕이 동해 앞바다에 호국사찰로 건축하고 있던 감은사感恩寺를 완공하여 부왕의 뜻을 받들었다(현재는 절터에 석탑 두개가 남아있다, 사적 제31호, 사지의 동서 삼층 석탑은 국보 제112호).

682년(신문왕2년), 해관海官의 보고에 의하면 동해안의 작은 산이 감은사로 향하여 온다고 해서, 일관日官에게 점을 치게하니, 해룡이 된 문무왕과 천신이 된 김유신이 수성의 보배



휴람 - 성형외과

해외 동포 특별가 성형 패키지



성형 패키지 특별가 이벤트

- 눈 꺼풀 + 눈 밑 처짐..... 360 만원 콧대 + 코끝 350 만원
- 얼굴 처짐(목 처짐 포함)..... 700 만원 지방흡입(복부)..... 500 만원
- 가슴(보형물에 따라 가격 상이)..... 600~1,000 만원

* 상담 결과에 따라 수술 방법 및 비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휴람을 통한 예약 시 이벤트 혜택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술 내용에 따라 휴람에서는 숙박 혜택 및 추가 서비스도 제공해드립니다.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617.949.1766

TALK 010-3469-4040 / ID : huramkorea
haram@haram.kr / www.huramkorea.com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성기주 변호사 칼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http://www.lookjs.com

Copyright ©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민 Updates (2023년 4월 13일)

1. H1B 추첨완료/승인된 H1B에 대한 대대적 조사

2023년도 (2024 회계년도) H-1B 추첨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개운치 않은 점들이 많습니다. 연 8만5천개의 자리를 놓고 매년 추첨이 이뤄지지만 신청수는 해마다 증가해 올해는 약 70만개의 신청서가 접수됐을거란 예상이 그리 놀랍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모든 신청서가 정식적인 고용의 의해서 접수됐을거라고 생각하는 전문가들은 한명도 없을 겁니다. 한 사람이 두번이상 접수할 수 없지만 고용인이 다들 경우 무제한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H비자가 절실한 신청자들에게 이러한 두개 이상 신청을 대행해 주는 브로커들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심지어 추첨에 통과됐지만 어떤 고용인에 의한 신청이 통과됐는지 헛갈려 하는 분도 만나봤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편법적인 다수/중복 신청을 막는데 이민국이 너무 소홀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진실 여부에 상관없이 계속 신청 수만 늘어나길 바라는 것은 아닌 지 의심이 됩니다. 매년 추첨과 관련된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청접수비만 \$10 입니다. 공식발표에 의하면 작년 에 약 50만명의 추첨신청이 접수됐다고 합니다. 즉, 추첨기간 3주 동안 약 \$500만불 (한화 약 65억원) 을 벌어들였습니다. 만약 올해 접수된 신청이 70만개라면 이민국은 약 3주동안 컴퓨터 몇천 돌리고 약 \$700만불 (한화 약 91억원)을 벌어드린 겁니다. 게다가 내년에는 신청료가 \$250로 대폭 인상됩니다. 만약 올해와 같이 70만개의 신청이 접수되면 이민국의 수입은 \$1천7백5십만불 (한화 약227억원) 에 달하게 됩니다.

이민국이 돈을 버는 것 자체를 나쁘게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수입이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이민업무에 쓰인다면 오히려 환영합니다.

하지만, 정당한 방법이 아닌 수익은 바람직하지 않겠죠. 또한,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우려도 이민국의 제대로 된 H비자 추첨 제도 개선에 힘을 실어줍니다.

계속해서 추첨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이 발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대대적인 소송도 예상됩니다. 이미 몇몇 이민

단체들에 의해 소송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고요.

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이러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미분책일 수도 있고요. 최근 이민국은 이미 승인된 H에 대한 대대적 실사를 예고했습니다. 가짜 H를 색출해 쿼터를 확보해 2차 3차 추첨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합법적인 H비자라도 실사는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H와 관련된 신청서 사본들이 노동장소에 잘 비치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 추첨과 관련된 소식은 계속해서 지면을 통해 업데이트 해 드리겠습니다.

2. I-603 (신체검사) 조건 완화

영주권 신청서 같이 제출해야 하는 신체검사와 관련된 최근 이민국의 새로운 시행령이 있었습니다. 신체검사서를 검사일로 부터 60일 안에 이민국에 접수해야 하는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신체검사서는 검사일로 부터 2년간만 인정하는 조건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영주권 스탬프 (ADT)

영주권을 분실하는 등의 이유로 여권에



영주권자임을 확인받는 스탬프에 관련된 최근 이민국 시행령이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반드시 지역 이민국에 직접 가서 본인의 여권에 영주권 인증 스탬프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은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이민국이 승인하면 스탬프를 우편으로 발송해 준다고 합니다. 단, 이러한 신청은 대리인이 할 수 없으며 반드시 본인 이 전화로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4월 16일 - 4월 22일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쥐띠 | 새심한 주의가

●운수: 안정적 상황에서 추구하는 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잊지 말고 안정에 신경을 기울여야겠습니다. ●금전: 일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작은 실수가 화근이 되어 큰 손실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애정: 주고받는 말 한마디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일든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하세요. 96, 84, 72, 60, 48, 36년생은 16, 20일 길일, 18, 21일 주의.

소띠 | 희망이 보이는

●운수: 힘든 언덕을 넘고 평지에 도달하게 되는 운세입니다. 일의 성과도 높아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금전: 희망이 보이는 시기로 수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일즈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은 많은 영업 실적을 올릴 것입니다. ●애정: 순간적인 감정을 억제하고 흐름을 잘 보아가면서 진행하도록 하세요. 처음이 좋으면 순조롭게 지나갈 것입니다. 97, 85, 73, 61, 49, 37년생은 17, 21일 길일, 19, 22일 주의.

범띠 | 융통성을 보여야

●운수: 너무 급하게 서두르면 확실하게 일처리를 못합니다. 차분한 자세로 꼼꼼하게 일처리를 해나가야 하겠습니다. ●금전: 고지식하면 자신에게 돌아올 이익이 달아날 수 있습니다. 거래에 있어서 융통성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애정: 외면하고 피하는 방법으로는 어떤 일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숨바꼭질을 그만하고 정면으로 부딪쳐보세요. 98, 86, 74, 62, 50, 38년생은 18, 22일 길일, 17, 20일 주의.

토끼띠 | 현실을 직시해서

●운수: 현재의 위치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해도 현실을 직시하세요. 현실과 이상의 차이에서 오는 거리감을 극복해야 합니다. ●금전: 분수에 맞지 않은 일은 하지 마세요. 실질적으로 소모가 많으면서 겉으로는 화려하게 보일 때입니다. ●애정: 어떤 목적인 슬픔이 폭포수처럼 밀려오고 이상하게 자꾸만 가슴이 아려오는 시기입니다. 99, 87, 75, 63, 51, 39년생은 19, 22일 길일, 18, 21일 주의.

용띠 | 지금 솔직해지는 것이

●운수: 아주 높은 장대 위에 올라선 것 같군요. 위태롭고 위험한 일이 생길 우려가 있으니 자중해야 합니다. ●금전: 아랫돌에서 빼서 윗돌을 괴고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괴고 갔군요. 임시변통으로 이리저리 둘러맞추고 있습니다. ●애정: 방심하다가가는 별것 아닌 걸로 크게 싸울 수 있습니다. 상대를 잃고 싶지 않다면 지금 솔직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00, 88, 76, 64, 52, 40년생은 20, 21일 길일, 19, 22일 주의.

뱀띠 | 창의력이 샘솟는

●운수: 창의력이 샘솟는 주입니다. 좋은 계획이나 구상이 떠오르는 시기입니다. ●금전: 돈을 남에게 과시하려고 버는 것도 아니고 쌓아두려고 버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필요할 때에나 좋은 일에 쓰기 위해서 버는 것입니다. ●애정: 상대가 정말로 마음에 든다면 속으로만 애태우지 말고 적극적으로 접근해 보세요. 01, 89, 77, 65, 53, 41년생은 17, 21일 길일, 20, 22일 주의.

말띠 | 진실을 느끼게 되고

●운수: 그동안 비판적인 시선을 보내던 사람에게서도 찬사와 감재를 받게 됩니다. 주위의 인정도 받게 되는 주입니다. ●금전: 금전 융통은 불편함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어떤 분야에 투자를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애정: 두 사람 사이에 솔직한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서로의 진실을 느끼게 되고 확인을 하게 될 것입니다. 02, 90, 78, 66, 54, 42년생은 19, 22일 길일, 18, 21일 주의.

양띠 | 냉정하게 생각해 보아야

●운수: 가까운 사람과의 대화에 새로운 정보가 있습니다. 좋은 정보를 얻어도 확인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금전: 문문제로 오해가 생기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솔직한 대화를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애정: 상대를 정말 사랑한다면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상대를 위한 것인지 냉정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17, 18일 길일, 19, 22일 주의.

원숭이띠 | 용기를 잃지 말고

●운수: 때때로 무력감이 느껴지더라도 용기를 잃지 말고 고군분투해야 할 것입니다. ●금전: 살다가 보면 동기간 등 가까운 사람으로 인한 손해는 부지기수입니다. 손해를 보고 원망하지 말고 미리 잘 대처하세요. ●애정: 사랑이라는 감정에 빠져서 다른 것은 소홀히 하거나 놓치고 지나가는 것이 없도록 주위를 잘 살펴야 하겠습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16, 22일 길일, 17, 19일 주의.

닭띠 | 냉철한 이성으로

●운수: 변화를 갖기보다는 현 상태를 유지해 나가세요. 냉철한 이성으로 주위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때입니다. ●금전: 심각하게 생각할수록 더욱더 곤란해집니다. 이미 지나간 것은 빨리 잊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애정: 외출 시에 주변 상황을 잘 돌아보고 각별히 언행에 신경써야 합니다. 뜻하지 않는 일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16, 17일 길일, 18, 21일 주의.

개띠 | 계획을 잘 세워야

●운수: 새롭게 일을 벌이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입니다. 오히려 하던 일에 충실하고 집중하는 것이 좋은 일을 불러옵니다. ●금전: 착실하게 모아서 크게 쓸 수 있도록 미리미리 계획을 잘 세워야 할 것입니다. ●애정: 두 사람이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솔직히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정면에서 애정을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18, 22일 길일, 16, 19일 주의.

돼지띠 | 전진의 기회가

●운수: 전진의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피로한 일에서 탈피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금전: 마치 자신은 콩 한쪽을 갖고 있는데 그것마저 나누어 달라는 격으로 낙담하지 못한 살림에 달라는 사람이 있군요. ●애정: 자신이 먼저 말하는 것이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19, 22일 길일, 17, 20일 주의.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부동산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38년 운영한 세탁소 판매
은퇴위해 매매 합니다.
Tel 617-304-1388

형제 떡집 매매합니다.
Tel 978-343-6080, 978-407-9029

덴탈 랩 매매합니다.
Tel 508-215-9122

베벌리 타운 피자 가게 직원 급구함
캐시어 등 모든 포지션 직원
경험자 우대, 무 경험자 환영
영어 가능자 선호
617-251-1120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 781-648-0584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심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김희애-문소리의 워맨스 '퀸메이커'... "여성서사 이끌면서 행복"

(서울=연합뉴스) 오명연 기자 = "전에는 남자 배우들만 많이 나오는 작품들이 많았어요. 남장하고 출연하고 싶을 정도로 부러웠는데, 이번 기회로 여성 서사를 그려낸 작품에서 중심을 이끌 수 있었다는 게 배우로서 너무나 행복한 일이었죠."

오는 14일 공개되는 넷플릭스 새 시리즈 '퀸메이커'의 주연 배우 김희애는 11일 서울 용산구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노련하고 영리한 캐릭터를 만나 대리만족을 느꼈다"고 말했다.

'퀸메이커'는 이미지 메이킹의 귀재 황도희(김희애 분)가 약자의 편에 서서 세상과 맞서 싸우는 인권변호사 오경숙(문소리 분)을 서울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선거관에 뛰어들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김희애는 "황도희는 은성그룹이라는 대기업에서 전략기획실장으로 일하다가 어떤 사건을 겪게 되고, 회사의 무책임한 태도에 충격받아 회사를 관두게 되는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황도희는 한 대 맞으면 두 대로 갚아주는 성격"이라며 "오만방자한 은성그룹을 부수고, 오경숙을 서울시장으로 만드는 걸 새 목표로 삼게 된다"고 덧붙혔다.

김희애는 또 "여성 서사를 담고 있지만, 성별에 국한되지 않는 사람의 본성과 욕망을 들여다보는 재미도 있다"면서 "캐릭터들의 치밀한 심리전과 거둬되는 반전이 대본을 놓지 못하게 했다"고 소개했다.

김희애와 호흡을 맞춘 배우 문소리는 "한국에 수많은 드라마가 있었지만, 이런 캐릭터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전에 본 적 없는 캐릭터를 맡았다"고 맡은 배역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문소리가 연기한 오경숙은 은성그룹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당하자 은성백화점 옥상에서



두 달 넘게 고공 농성을 벌이다 화제를 모은 변호사다.

대중을 끌어당기는 화법과 극적인 순간을 만들어내는 퍼포먼스 본능을 타고난 인물로, 서울시장 당선이라는 목표를 위해 대립하던 황도희와 손잡고 도전을 시작한다.

문소리는 "여성들이 정치관에 뛰어드는 흔치 않은 이야기였다는 점에서 흥미로웠다"면서 "기존 여성 정치인의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자유분방한 사람이 정치인이 된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캐릭터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연출을 맡은 오진석 감독은 "강한 두 여성이 전통적으로 남성이 주를 이뤘은 권력의 세계에 정면으로 맞서 충돌하고 부딪히는 점이 여타 정치물과 다르다"고 차별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정치물에 큰 관심이 없는 분들도 전혀 다른 성격의 두 여성이 충돌하고 연대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coup@yna.co.kr

블랙핑크 지수, 미국 빌보드 '글로벌 200' 2위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걸그룹 블랙핑크의 지수가 지난달 발표한 솔로 음반 타이틀곡 '꽃'이 미국 빌보드 '글로벌 200'과 '글로벌'(미국 제외)에서 각각 2위를 기록했다고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가 11일 밝혔다.

두 차트는 세계 200여개 지역에서 수집한 스트리밍과 다운로드 수치를 토대로 순위를 매긴다.

빌보드는 "지수는 로제와

리사에 이어 이 두 차트의 '톱 10'에 진입한 블랙핑크 세 번째 멤버"라고 소개했다.

'꽃'은 전 세계적으로 1억 870만건의 스트리밍과 29억 1천만건의 다운로드를 기록했다. 이는 빌보드 글로벌 차트 출범 이후 세 번째로 높은 첫 주 스트리밍 기록이라고 빌보드는 전했다. 1위는 블랙핑크 동료 리사의 '라리사'(LALISA)가 기록한 1억 5천 260만건이었다.

tsl@yna.co.kr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기]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림이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남편의 2주기 기일을 보내고..

흘쩍 2년이 지났다. 어떻게 지내고 있는 나고? 물어오는 지인들의 걱정어린 마음에 감사하고 바쁘게 잘 지내고 있노라고 답을 해주는 나를 가만히 만나본다. 말처럼 참 잘 지내고 있다. 생각해보면 바쁜 것이 약이 되었는데도 모른다. 참으로 바쁘게 보냈다. 이처럼 바쁘지 않았더라면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을까. 끔찍하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무작정 기도하며 지냈다. 이것이 내게 허락하신 최선의 방법이신가 싶었다. 내게서 제일 소중한 것을 거둬가셨으니 앞으로의 내 삶도 당신께 맡겨드리다고 말이다.

뉴욕에서 신학대학원 공부와 전도사 사역 그리고 상담 사역을 하며 몸과 마음은 매우 바쁘지만, 기뻐하며 보람도 되었고 감사와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 그래서 남편을 떠난 보낸 2년이 내게는 또 하나의 큰 충격의 시간이었지만, 잘 감당하며 보낼 수 있었다. 다만, 세 아이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아려왔다. 다들 자신의 일자리에서 자리매김하며 살아주니 고맙고 지켜주시

는 하나님의 손길에 그저 감사함으로 있었다. 지금도 아니 오늘의 내일도 마찬가지다.

지난 가을부터 매주 토요일 아침 FM 87.7 레디오 방송 <신영 전도사의 하늘스케치>를 시작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 가운데 메모했다가 함께 나누는 시간을 택했다. 남자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는 사이에 여자 전도사가 끼여 하는 방송이라 마음의 부담이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묵묵히 해가고 있다. 가끔 청취자 목사님들이나 청취자분들을 만나게 되면 잘 듣고 계시다는 말씀에 용기를 얻고 또 기도하고 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라는 것을 기억하며 매일 매순간 겸손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한다.

이번 학기부터 <상담학 박사과정>을 시작했다. 상담학 공부가 조금은 버겁기는 하지만, 재미도 있었다. 그동안의 삶 가운데서 많은 시댁 가족들과 또 다른 관계들 속에서 버겁다고 느꼈던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음을 또 깨달았다. 아, 모든 것들이 내게

필요한 시간이었음을 고백하게 되었다. 누군가 또 나와 같은 입장에 처한 이들이 있다면 위로할 수 있어 감사하다. 하나님이 사역자의 길을 열어가시니 참으로 은혜의 시간이다. 앞으로 나를 어떻게 써 가실까 궁금해지기까지 하다.

남편의 2주기 기일을 보내며 참으로 고마운 사람이라고 묘지를 찾아 말해주었다. 참으로 내게 편안한 친구 같은 사람이었다. 세 아이에게도 늘 친구처럼 재미있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던 좋은 아빠였다. 생각하면 '그리움' 이 파도처럼 넘실거린다. 그래서 매일 매일의 삶이 바쁜 것이 내게 약이 되었음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남편을 떠나보낸 자리를 어떻게 보낼 수 있었을까. 이런저런 생각들이 2년 동안의 시간을 넘나들며 그저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어 나는 또 행복한 사람이다.

옛그제 2주기를 보내며 고맙다는 인사를 해주었다. 그리고 흑여 남편을 떠나보내고 혼자 있던 나의 자리에서 이런저런 서운함

이 들었던 이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모두 용서하리라고 기도했었다. 남편에게도 이야기를 해주었다. 나의 마음속에 남은 앙금들일랑 오늘로써 모두 씻어버리겠노라고 말이다. 나의 마음이 나의 영혼이 많이 자유로워졌다. 이제는 더욱이 제대로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 남편에게도 하늘나라에서 열심히 사는 나를 응원해 달라고 지금은 전도사로, 앞으로는 목사로 사역자의 길에 설 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말이다.

이제 생각하니 '내 것' 이라는 것이 '내 것' 이 아님을 깨닫는다. 내가 누리는 기쁨과 행복이 다른 이와 함께 나눌 때 우리 모두의 기쁨과 행복이 되듯이, 내 슬픔과 아픔과 고통도 나 혼자만 끌어안고 있지 않고 다른 이와 나눌 때 슬픔과 아픔과 고통도 희석되어 열어지는 것이다. 참으로 귀한 것을 깨달아 간다. 이제는 더욱이 그렇게 살고 싶다. 내 기쁨과 행복이 우리 모두의 기쁨과 행복이길, 내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또한 우리 모두의 나눔이길 소망하며 기도한다. 살롬!! ^ ^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담객설閑談客說: 식사 초대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한일관. 지금도 성업중인가 그건 모르겠다. 명동과출소와 나란히 붙어있었는데, 당시엔 싸구려 음식점은 아니었다. 불고기가 유명했었지 싶은 거다. 아직 한식집 불고기는 서민들이 쉬이 맛볼 수 있는 음식은 아닐 적이었다.

왕년엔 입학이나 졸업시엔 불고기가 제격이었다. 값비싼 음식이었고, 졸업식이 끝나면 너나 없이 불고기 판앞에 앉았더라. 내 형이 대학을 졸업할 적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내 어머니가 한턱 냈던 거다. 덕분에 온 동네 어머니 친구분들은 모두 초대되었지 싶다. 어린 나야 한구석에서 불고기점을 얻어 먹고, 국물에 밥을 비벼먹었다.

한국에선 삼겹살이 불고기를 밀어냈다 하던가. 그나저나 보통사람들은 감히 식당 불고기를 맛볼 수 없을 수도 있겠다. 물가가 상당히 올랐다 했으니 불고기값도 만만치 않을

터.
시금치와배추 반 단의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 싶은 사람의 전화번호를 마음으로 외는 시간이란 얼마나 넉넉한가 흠이 물어도 정겨운, 함께 놓이면 그것이 곧 가족이고 식구인 네 컬레의 신발 (이기철, 네 컬레의 신발 중에서)

참, 명동 한일관은 명동과출소와 붙어있었다. 과출소는 장발단속으로 이름을 떨치던 곳이기도 하다. 요즘도 장발을 하는 젊은 이들이 있나?

한일관에선 신발을 벗고 키 낮은 식탁에 앉아 불고기를 맛봤다.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누가 7:36)

한국대통령이 방일訪日했을 적이다. 정상 회담을 마친후 두번에 걸쳐 저녁식사와 친교시간을 가졌단다. 만찬후 자리를 옮긴 두 번째 식당이 인상깊다. 긴자거리의 역사깊은 음식점이라 했고, 대통령에게는 추억의 식당이라고도 했다. 그 식당에선 일본식 돈까스와 오므라이스가 유명하다던가. 아니나다를까. 한국대통령은 오므라이스를 주문했을

다. 오므라이스나 돈까스는 나역시 이따금 언어 먹는다. 아내덕분인데 이름하여 경양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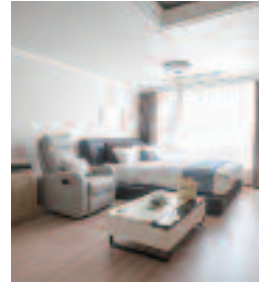
몇달 전이다. 동창들에게서 카톡을 받았다. 모임을 하는데 장소는 명동관이란다. 눈어두운 나야 명동에 있는 음식점인가 했다. 명동엔 명동칼국수도 있었고, 한식집인 한일관

한차원 높은 의료서비스 휴람 의료관광을 이용해보세요!



휴람 척추관절

나이가 들면서 오는 척추관절 퇴행성 질환...통증을 참고 계시나요?
어떻게 사시느냐가 중요합니다!!!
가치있는 생활을 위하여...하루 빨리 검사해보세요!!!



지금 상담을 통해 필요한 검사로 빠른 진단과 치료를 진행해보세요.
휴람은 국내수가로 부담없는 비용에 진행을 도와드립니다.

관절 질환

퇴행성관절염, 인대파열, 연골손상, 오십견,
회전근개손상, 무지외반증, 족저근막염등등

=> 세포치료, 체외충격파, 관절내시경, 발목골정술, 힌다리고정술, 로봇인공관절등등

척추 질환

디스크, 협착증, 측만증, 거북목증후군, 골절등등

=> 미세현미경디스크절제술, 경피적 척추성형술, 척추유합술, 신경성형술등등

*** 정확한 상담을 위해 기존에 촬영하신 X-RAY, MRI 사진을 카톡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 상기 치료는 병원에 따라 치료항목에 따른 비용 및 서비스등이 상이 합니다.

휴람 척추관절 네트워크 병원 - 휴람 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사랑플러스병원(강동구 굽은다리역), 연세사랑병원(서초구 사당역),
세란병원(종로구 독립문역), H+양지병원(관악구 신림역), 중앙대학교병원(동작구 흑석역)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617.949.1766

카카오톡 : 010-3469-4040(ID: huramkorea)
이메일 : huram@haram.kr
홈페이지 : www.huramkorea.com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신세계서울병원>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양방향척추내시경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휴람 의료네트워크 신세계서울병원 김연호 병원장의 도움을 받아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최소침습, 부분마취로 빠른 회복 가능한 허리수술이 양방향척추내시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허리건강을 괴롭히는 허리디스크와 척추관협착증, 7명 중 1명이 척추질환을 앓고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허리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허리통증이 나아지지 않고 장기화되며 점점 심해지는 증상이 있다면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아보고 빨리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척추 질환 치료에서 가장 우선하는 것과 중요한 것은 바로 정확한 진단이다. 원인을 올바르게 파악해야 적절한 치료를 시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허리디스크의 경우 초기에는 약물치

료나 물리치료, 주사치료와 같은 보존적인 치료로 통증을 완화하고 질환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관리하지만 효과가 없거나 통증이 극심할 경우 다른 치료방법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최근에는 척추질환에 대한 비수술적 치료법이 발달하면서 큰 피부절개없이 시술을 통해 질환을 치료하기도 하지만, 이미 신경을 압박하는 정도가 심각하거나 재발된 상황이라면 수술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대다수의 환자들이 허리 수술에 대한 부담감과 후유증, 오랜 회복기간 등을 이유로 수술을 기피하는 편. 병원에서 이 때문에 척추 수술은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하기도 했지만, 척추질환에도 내시경술이 활발하게 적용되면서 수술에 대한 부담없이 일 상으로의 빠른 복귀가 가능하게 됐다.

바로 많은 척추 전문 의료진들이 주목하는 양방향척추내시경 수술이다. 약 1cm 미만의 작은 구멍 2개를 통해 각각 내시경과 수술기구를 삽입하여 병변을 제거하는 수술방법으로 양손

을 이용하며 시야가 보다 넓게 확보되어 접근이 어려웠던 위치의 병변에도 시행 가능하다.

또한 피부절개나 마취, 출혈, 흉터 등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입원기간이 짧고 수술 당일 바로 보행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속도가 빠르며 합병증 염려나 재발 가능성이 거의 없는 편이다.

휴람 의료네트워크 신세계서울병원 김연호 병원장은 “양방향척추내시경 수술 후에는 체계적인 물리치료와 재활치료를 병행해 치료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틀어진 몸의 정렬을 바로 잡고 근육과 인대, 관절의 정상 운동 범위를 회복시켜 보다 빠른 회복을 도와줄 수 있다” 라며 “그렇기 때문에 수술과 재활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병원을 선택하는 것 또한 치료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전했다.

척추질환의 내시경적 수술비중이 갈수록 늘 아지고 있는 추세이지만, 무엇보다 허리 수술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시행해야 한다. 또한 고

난도의 정밀한 수술인 만큼 전문지식을 갖추고 임상경험이 풍부한 의료진이 상주하는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양방향척추내시경”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수남팀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 Kakao ID : huramkorea
-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M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더 많은 가족 모임을 위해 최신 COVID 백신을 접종하세요.

이제 최신 백신이 기존 COVID 바이러스와 오미크론으로부터
여러분과 사랑하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휴리데이 기간에 맞춰
출시되었습니다. 오늘 최신 백신을 무료로 예약하세요.

[vaccines.gov](https://www.vaccines.gov)에서 최신 COVID 백신을 알아보세요.



미국 보건복지부 자금으로 제공됩니다.



국제결혼가정선교회, 연례 모금 만찬 파티에 초대합니다.



Fundraising Dinner & Dance
Hosted by Boston Chapter

Date : Apr 15, 2023 (Saturday) 6 PM

**The UMass Lowell Inn & Conference Center
50 Warren St. Lowell, MA 01852**

Ticket : \$100.00 PER PERSON

Contact: 781.248.5546 978.828.1383

“ 평화의 땅, 평화의집 엘터 구축과 2세 지원을 위해 사용됩니다. ”



Sharing peace. Sharing God's blessing.

평화와 하나님의 축복을 나눕니다..



국제결혼가정선교 전국연합회
National Association of Inter-Cultural Family Mission

BOSTON CHAPTER
www.naicfm.org



국제결혼가정선교 전국연합회
National Association of Inter-Cultural Family Mission

Fundraising Dinner & Dance
Hosted by Boston Chapter

Contact: 781.248.5546 978.828.1383 www.naicfm.org

Date: Apr 15, 2023 (Saturday) Time: 6 PM
The UMass Lowell Inn & Conference Center
50 Warren St. Lowell, MA 01852



NAIFCM 국제선교
BOSTON CHAPTER

Fundraising Dinner & Dance
Hosted by Boston Chapter

Date: Apr 15, 2023 (Saturday)
Time: 6 PM

The UMass Lowell Inn & Conference Center
50 Warren St. Lowell, MA 01852

\$100.00 PER PERSON



조정된 상품 가격 (5월 1일부터. 무료영화는 6월부터 편당 1불로 변경)

*전상품 1년 약정

Plus 상품

KBS, MBC, SBS, EBS, YOUTUBE

\$24.99

Premium 상품

KBS, MBC, SBS, EBS, 케이블/종편, YOUTUBE

\$34.99

VIP 상품

KBS, MBC, SBS, EBS, 케이블/종편, 영화/성인, YOUTUBE

\$39.99



**티보
실시간 한국방송
서비스 확대**



**지금 전화하세요!
617.949.1766**

연합뉴스TV MBN JTBC / JTBC골프 / 채널A(동아방송) / KIDS / 육아방송 / CBS(기독교방송) / ETN / 바둑TV / 이벤트TV / KTV / 우리방송





HOME RENOVATION
NAMU | 나무

- 국제기능올림픽 목재분야 금메달리스트
- 대통령 훈장 수훈
- 15년 이상의 경력



**WHY
NAMU**



정직하고
디테일한 견적



고객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한 진행



체계적 관리를 통한
계약 기한 내 완공

SERVICE

- ✓ 하우스 레노베이션
- ✓ 커스텀 캐비닛, 데크
- ✓ 원목 테이블, 가구

FULLY LICENSED AND INSURED

- MA Construction Supervisor License (General contractor) 건축자격증 보유
- Liability Insurance 책임보험 가입

무료
견적 상담

견적부터 마무리까지 확실하게 책임지고 양심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www.namuma.com
info@namuma.com

617-775-4771
58 Pulaski st, Peabody, MA 01960

INSTAGRAM
@namu_finewood



보스톤코리아 인터넷 신문, 이제 카카오톡 채널로

보스톤**코리아** +

카카오 채널 친구신청 해주세요

보스톤코리아 신문의 이메일 발송은 기술적인 문제와 Gmail의 정책변화로 당분간 발송이 중단됩니다. 보스톤코리아는 이메일 발송 재개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신문 전달의 다양한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카카오톡 채널로 신문과 각종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의 방법으로 <카카오 채널 친구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친구신청 하는 방법

1. 바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읽으신 후 나타나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스톤코리아 카카오 채널로 이동합니다.
2. 오른쪽 상단의 노란 버튼의 카카오채널 친구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채널추가 버튼이 중간에 나타납니다.
3. 채널추가를 눌러 주시면 앞으로 보스톤코리아 신문과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선착순 200명중 20명을 선정해서
\$15 아마존 기프트 카드를 드립니다.

보스톤**코리아**
www.bostonkorea.com